

핵심 요약 노트

한국사

한국사 핵심 요약노트

발행일	2022년 7월 1일
저자	꿈꾸는라이언
발행처	꿈꾸는라이언
출판등록	2022년 6월 14일 (제 2022-000058호)
이메일	iuy64@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dreaming_ryan
판매가	11,900원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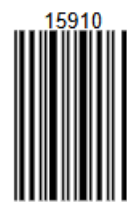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값 11900 원



9 791199 357907



15910

ISBN 979-11-993579-0-7 (PDF)

목 차

1. 고대의 한국사 /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1
2. 중세의 한국사 (고려)	5
3. 근세의 한국사 (조선 전기)	9
4. 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후기)	11
5. 근대의 한국사 (흥선대원군 ~ 일제 강점기 이전)	14
6. 일제 강점기의 한국사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	17
7. 현대의 한국사 (대한민국정부 수립, 현대 정치)	20

안녕하세요. 꿈꾸는라이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능검 시험을 앞두고 **꿈꾸는라이언 한국사 요약노트**를 찾으셨을텐데요,
한능검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 공부했던 방법과 그리고 지난 3년 간의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보면서 알게 된 **한능검 1트 합격 방법**을 공유해드리려 해요.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라면 단기간에 더 효율적으로 합격했을텐데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어요. 적어도 꿈꾸는라이언 요약노트를 찾으신 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본격적인 한능검 공부 전에 가볍게 읽어봐주세요~ :D

1. 한능검은 ‘시험’이에요! 처음 한능검을 공부해보시면 역사적 사건 속 숨겨진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에 공부가 수학, 영어처럼 지루하진 않으실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알아간다는 재미는 잠시뿐.. 막상 시험을 치르게 되면 분명 공부했던 내용인데 헛갈리는 문제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실거예요ㅠ 그리고 결국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ㅠ) 공부는 정말 재밌게 했는데 결국 남는게 없었던거죠. 그 뒤로는 역사 지식 습득이 아닌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독하게 공부했어요. 가장 먼저, 실제 기출에 나왔던 빈출 키워드를 바탕으로 단권화 요약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1장의 요약노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요약노트를 시험 때까지 반복 암기하면서 결국 두 번째 시험에선 1급 100점으로 졸업하게 됐네요.
우리 모두 한국사를 재밌게 공부하는 건 당연히 너무나 좋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능검을 준비하시면서 각자 원하시는 최종 목표는 따로 있으실거라 생각해요. 한능검도 결국은 여러 ‘시험’ 중 하나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2. 한 단원씩 끊어서 공부해주세요! 한국사를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그 분량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단원씩 분할해서 학습하는걸 추천드려요. 한 단원씩 ① **요약노트 학습** → ② **해당 단원 기출 문제 풀이** → ③ **기출선지 체크리스트 및 빈칸 요약노트 복습** 이런 순서로 먼저 각각의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 범위를 요약노트로 반복 회독하시는거죠. 그리고 이때 기본 요약노트 이외에 따로 정리해드린 추가 학습 자료 (인물사/지역사/역사서/건축물 등)도 공부하시면서 한국사의 전체 큰 흐름을 봐주세요~ 같은 내용을 한 자료로만 공부하는게 아니라 여러 자료에 노출되서 반복 암기하는게 우리 뇌 속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3. 기출 풀이는 너무나 중요해요! 한능검 시험이 단순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출제된 선지들을 회차별로 정리해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래 표는 실제 한능검 심화 시험에서 ‘백제 성왕’을 키워드로 출제된 선지 내용인데요, 한번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71회	도읍을 사비 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59회	사비 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67회	웅진에서 사비 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	57회	사비 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64회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 로 옮겼다.	53회	사비 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다.
60회	사비 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백제 성왕의 핵심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모두 ‘백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는 내용의 선지들인데요, 이렇듯 실제 기출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반복되어 출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노트 학습 후에는 기출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시길 권장드려요. 기출 풀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3급이 목표시라면 최신 기출 최소 5회차를, 1급이 목표시라면 10회차 이상**은 반드시 정리해보세요! 기출 풀이 후에는 제공드린 기출 선지 체크리스트로 최종 복습도 해보시고요~

매국노 수준으로 한국사에 무지했던 저도 해냈으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분명 해내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힘들고 지칠 때도 많겠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조금만 더 견디고 끝까지 도전하시면 곧 밝은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거예요! 제가 그 길의 옆에서 함께 응원하며 도와드릴게요 :)

그럼 모두 원하시는 등급으로 한능검 1트에 합격하시고, 각자 계획하신 목표와 꿈들도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 합격 미리 축하드립니다!!!



■ 구석기 ~ 철기

구석기	펜석기 (주먹도끼), 스페찌르개, 돌굴/막집, 홍수아이(청원 홍수굴)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청주 오송읍 상정리
신석기	간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갈돌/갈판), 농경/목축 시작 발농사 중심 조/피/수수, 빗살무늬 토기 (서울 암사동 유적) 반지하 원형, 둥근화덕, 움집(정착생활)
청동기	계급발생, 고인돌,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벼농사 시작
철기	널무덤, 독무덤, 세형동검, 거푸집, 중국과 교류(명도전, 반량전)

※ 청동기/철기: 보리/콩 재배 시작, 벼농사 시작, 반달돌칼로 추수, 직사각형 움집의 지상 가옥, 주춧돌 사용 (화덕은 벽쪽)

■ 시대별 유물/유적지

구석기	   펜석기 스페찌르개 홍수아이    단양 수앙굴 유적 단양 금굴 유적 평양 용곡 동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 뼈바늘 갈돌 / 갈판   서울 암사동 유적 조개 가면/지레걸이
청동기	    비파형 동검 반달돌칼 민무늬토기 미송리식토기
철기	  독무덤 널무덤     명도전 반량전 세형동검 거푸집

■ 고조선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

단군의 건국 이야기 수록 : 삼국유사, 제왕운기

- BC 2333년에 단군왕건이 건국 (요령 지방) /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 강력한 왕인 '부왕', '준왕'의 등장 (부자세습) → 연과 대립할 만큼 강력
-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요동 지역 상실
- cf. 고조선의 **8조법 (법금8조)**: 노동력 중심, 농업중심, 사유재산 사회, 화폐 사용

■ 위만 조선 (BC 194) →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 집권

- 연나라로부터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위만이 고조선으로 입국
- 철기 문화 본격 수용 (진번/임둔 복속 후 영토 확장) / **중계무역의 번성**
- **한나라(한 무제)의 침입**: 우거왕 피살, 왕검성 함락 (남방의 진 ↔ 중국의 한)
-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향

<연맹 국가>

■ 부여: 만주 길림시 일대,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

- 5부족 연맹체제: 왕 아래 마가/우가/저가/구가 → **사출도** 지배 (왕권 미약)
- **순장**(부인/신하/노비 같이 묻음), **오제점묘** (왕권약화 반증)
→ **소의 발굽으로 길일을 판단**
- **형사 취수제**, **영고(12월)**, 연좌제, 1책 12법
→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 → 남의 물건 훔치면 12배로 갚기

■ 고구려: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

- 5부족 연맹체제: 계루부, 절노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 관동: 상가/대로/패자/고추가 → 주부/우태/사자/조의/선인 등의 관리
- 약탈 경제, 제가 회의, **서옥제(데릴사위제)**, **동맹(10월)**, 국동대혈 (제사 유적지)
→ 신랑이 신부 집 별채에 얹혀 생활

■ 옥저: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

- 군장 국가: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지배 (왕이 없음) → **동에 동일**
- 어물/소금 등의 해산물 풍부 (고구려에 공납)
- **가족 공동묘**, **민머드리제** / 후에 고구려에 복속됨
→ 어릴 때 약혼 후 신부가 신랑 집에 생활하다 성인되어 정식 결혼

■ 동예: 옥저 밑 지방

- 군장국가 동일 (읍군, 삼로) / 방직 기술(명주, 삼베)
- 특산물: 단궁(활), 과하마(작은말), 반어피(바다표범 가죽)
- **무천(10월)**, 책화 (부족의 영역 침범 시 노비/말로 변상), **족의 혼**
→ 다른 씨족과 결혼

■ 삼한: 신지/견지, 부례/읍차 (대족장) 지배

- 제정 분리 사회: 제사장(천군)이 신성지역(소도) 다스림
- 벼농사 중심 (저수지 축조, 철제 농기구 사용)
- 변한: 철 생산 → 낙랑/왜에 수출 / 계절제: **5월(수릿날)**, **10월(상달제)**



★ 나라 별 위치 확인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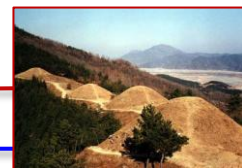
	고 구 려	백 제	신 라
1C	유리왕: 졸본 → 국내성 천도 태조왕: 옥저 복속		■ 삼국의 통치 체제 - 고구려: 제가 회의 / 수도와 전국을 5부로 나눔 옥살, 처려근지 지방관 파견 - 백 제: 정사암 회의 / 5부 5방 군사적 행정체제 지방 22담로 (무령왕) - 신 라: 화백 회의 / 상대등 / 골품제 / 14관부 → 귀족 대표회의 (만장일치)
2C	고국천왕: 왕위 부자 상속, 신대법 (올파소)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 → 민생안정책	백제의 관직 체제: 6좌평 / 16관동제 (시대 불명확)	
3C	동천왕: 위나라 관군점의 침입 (고구려 세력 위축) → 환도성 함락	고이왕: 한강 장악, 율령반포, 관제 정비, 공복 제정 → 마한 국가 (목지국) 복속	
4C	미천왕: 서안평 공격 → 낙랑군/대방군 축출 요동진출 발판 고국원왕 (전사) ← 평양성 전투 소수림왕: 불교공인(전진), 태학 설립, 율령반포	근초고왕: 요서/산동/규슈 진출 (칠지도) → 왕의 부자상속, 서기(고흥) 편찬 → 마한 전 지역 복속 침류왕: 불교공인 (중국 동진의 마라난타 - 인도 승려)	
5C	광개토대왕: 요동/만주 정복사업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 (광개토대왕비) '영락' 연호 사용	아신왕: 고구려에 항복 (한강 이북 상실) 구원	내물왕: 왜구 침범, 김씨 왕위의 독점 (마립간 칭호) → 왜군 격퇴 후 고구려 군이 신라 영토 내 주둔 (호우명 그릇, 고구려의 신라 내정간섭)
	장수왕: 평양 천도 (남진 정책) 한강 장악 (중원고구려비) → 경당 (책, 활쏘기) → 위협! 공격! (한성 함락)	비유왕 ← 나제 동맹 개로왕: 북위에 사신 보내 고구려 공격 요청 (국서) → 장수왕 분노/침공 후 개로왕 살해 문주왕: 웅진(공주) 천도 동성왕: 탐라 (제주) 복속 결혼 동맹 나제 동맹 강화	눌지왕: 고구려가 백제 공격 시 지원 (나제 동맹) 소지왕: 행정적 성격의 6부로 개편
6C	*부경: 고구려 지배층이 집집마다 가졌던 창고 (곡식 저장) ● 한강 유역을 신라와 백제의 공격으로 빼앗김 (영토 회복을 위한 온달의 활동)	무령왕: 22담로 (왕족파견) 중국 남조와 국교 강화 성왕: 사비(부여) 천도, 국호 '남부여' 변경 22부의 실무관청 ① 나제동맹 → 고구려 공격 (한강 수복) ② 진흥왕 배신 → 나제동맹 결렬 ③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 전사	지증왕: 신라(국호), 마립간 → '왕' 칭호 사용 / 순장 금지 / 우산국 복속(이사부) / 우경 실시 동시전 설치(시랑인 동사를 관리하는 기관) 법흥왕: 율령 반포, 17관동 / 관복 제정, 불교공인 (이차돈 순교), '건원' 연호 사용, "금관가야" 정복 (532) 상대등 / 병부 설치 (군사력 강화) 품주 설치 (조세 관장) 진흥왕: 화랑도 공인 / '개국' 연호 / 거칠부 '국사' 한강 장악 → 대가야 정복(562) → 함경도 진출 → 순수비 (단양정성/북한산/창령/황조령/마운령)
7C	● 수나라(양제)의 침입: 을지문덕 '살수대첩' (612) ● 당나라의 침입 대비: 천리장성 축조 - 연개소문의 정변: 영류왕 제거 → 보장왕 즉위 ● 당 태종의 침입: 양만춘 '안시성 전투' (645) → 고구려 승리, but 연개소문 사후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 → 나당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668)----- ● 고구려 부흥 운동 (670~674) - 검모잠, 고연무 → 보장왕의 서자 '안승' 추대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 추대 한성/오골성 근거지 부흥 시도 → 실패	보병/기병 50명 기습작전 시도 → 신라 북병에 당함 무왕: 익산 미륵사 창건 (639) 의자왕: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 함락(642) → -----백제 멸망 (660)----- ● 백제 부흥 운동 (660~663) - 흑치상지, 복신, 도침 → 왕자(풍) 추대 (임존성) (주류성) - 왜군과 합세하여 나/당 연합군 공격 - but,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배	선덕여왕: 분황사 모전 석탑 (634)/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자라의 건의) → 몽골 침입 시 훼손 진덕여왕: 신라 김춘추, 김사보 설치 (장관: 중시) 고구려와 교섭 실패 후 당과 연합 (648) → 한강유역 요구! 무열왕: 김유신 '황산벌 전투', 사비성 함락 (김춘추) → 비담과 영종의 난 진압 / 금관가야 마지막 왕 후손 문무왕: 고구려 병합, 평양성 함락 [나당 전쟁] (670~676) - 당의 한반도 지배 욕심: 안동도호부(고구려) 웅진도독부(백제) / 계림도독부(신라) - 매소성 전투 → 기벌포 전투 → 통일신라 (675) (676) (676)



백제 / 고구려 부흥 운동

■ 가야

- 전기: 김해의 금관가야 중심 (김수로왕 건국) / 우수한 철기 문화 / 낙랑,왜에 덩이쇠 수출
- 후기: 고령의 대가야 중심 / 각 소국들의 독자적 정치 기반 (세력 집중 X)
- 멸망: 금관가야 (법흥왕), 대가야 (진흥왕) 멸망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X,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김해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 통일 신라

※ **촌락문서**: 서원경 지방 4개 촌의 장적 → 조세 수취 목적

무열왕 (김춘추)	최초의 진골 출신 왕, 시종 기능 강화 → 상대등 세력 억제 *강수: 신라 유학자로 외교문서 해석/작성 → '첨방인문표' 집필
문무왕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후 삼국통일, 외사정 파견(지방관 감찰)
신문왕	cf. 고려: 기인 제도 * 김흠돌의 난 진압 후 왕권 강화! / 상수리 제도 (지방세력 통제) * 관료전 지급 (문무 관리), * 녹읍 폐지 , 설총의 화왕계 '이두' 9주 5소경 정비 , 9서당 10경 (군대), 감은사 건립, 국학 설치 (유교 교육)
효소왕	수도에 서시와 남시 설치 (기존 동시 시장에서 추가)
경덕왕	왕권 약화, 녹읍 부활 , 귀족 향락/사치 증가, 국학 명칭 → 태학 변경,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교 경전 가르침 불국사 석가탑
혜공왕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 피살 / 신라 중대 끝, 신라 하대 시작~
원성왕 (김경신)	독서삼품과 추진 (국학의 졸업생을 성적에 따라 3등급 구분) → But, 귀족들의 반대에 실패
헌덕왕	김헌창/김범문(아들)의 난 (822) :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의 왕위 계승 실패에 반발하여 일으킨 반란
흥덕왕	장보고의 활동 (완도 - 청해진 설치, 법화원 건립) * 대당 교역 / 당항성, 울산항 (아라비아 상인) → 장보고의 난 (846) → 중앙 귀족 암살

***김흠돌의 난**: 고구려 정벌에 큰 공을 세운 진골 출신 장군,
but,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이후 진골 귀족에 대한 대대적 숙청 진행***정전**: 통일신라 시기 백성들에게 지급하거나 사유지를 인정해 준 토지
***녹읍**: 지역 주민의 조세와 노동력 수취 가능 (지방 세력의 성장 근간)
***관료전**: 노동력 수취 불가 → 녹읍 폐지는 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 가능

■ 발해 (698~)

- 건국: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고구려인 + 다수의 말갈족 → **운돌 / 연꽃무늬**
길림성 동모산에서 건국 / 고구려 계승 (일본에 보낸 국서, **문화의 유사성**)

무왕	연호(인안) , 흑수말갈 공격을 반대한 대문예(무왕의 동생)의 당 나라 망명 → 장문휴 장군 의 산동반도 다투나라 등주 선제 공격
문왕	연호(대흥) , 신라도 개설 (신라와 상설 무역도) 당과 친선 관계, 3성 6부 정비, 주자감 (교육기관) 설치, 중경→상경 천도 → 정당성(상서성) / 선조성(문학성) / 중대성(중서성)
선왕	연호(건흥) , 5경 15부 62주, 해동성국 (중국인 칭송), 군사제도 (중앙군 10위) → 거란 침략으로 멸망 (926)

* **솔빈부의 말** 특산물로 거래 / 주변국 교류: 거란도, 영주도* **중정대(관리 비리 감찰) / 문적원(서적/비문 관리) / 주자감(교육기관)**

■ 통일 신라 말기 동요

- 녹읍 부활과 귀족들의 사치로 국가 재정 부족, 농민 수탈 심화

- **원종/애노의 난 (889, 진성여왕)**: **사벌주(상주)**에서 반란, 농민항쟁

(진성여왕)

★**최치원 시무 10조** - 통일신라 말기 혼란해진 국정과 귀족 사회를 비판하며
6두품 출신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함

계림필경, 토황소경문(적황소서) 저술

- **적고적의 난 (896, 진성여왕)**: 붉은 바지의 도적(농민반란군) 봉기⇒ **지방 호족 세력 성장** (몰락한 중앙 귀족, 지방 토착 세력 촌주)

선종 / 풍수지리설 / 미륵신앙 유행

※ **삼대목**: **향가 모음집 (위통, 대국화상)**

■ 후백제 (900 ~ 936, 견훤) → 신라 수도 공격, 경애왕 죽임

- 완산주(전주) 도읍, 중국(후당/오월)과 외교관계 체결

→ but, 반 신라 정책, 지나친 조세 수취, 호족 포섭 실패

■ 후고구려 (901 ~ 918, 궁예) →

- 양길을 쫓아내고 송악(개성) 도읍

- but, 궁예의 실정 (지나친 미륵신앙)

⇒ 고려의 성립 (918, 왕건)

- ✓ 신라 진골귀족 출신
- ✓ 경기/강원/황해도 장악 (양길 쫓아냄)
- ✓ 왕건 세력 흡수, 후고구려 건국
- ✓ 송악 → 철원 천도 (자신만의 근거지)
- ✓ 국호: 마진, 태봉 / 광평성 (중앙관부)

■ 종교

- 불교 (통일 신라)

원호	일체유심조 (당나라 유학 길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 발화' 깨달음) 화쟁 사상 (대승기신론, 일심사상) → 심문화쟁론 아미타 신앙, 무애가 종파간 사상적 대립 X
의상	화엄사상 (일즉다다즉일), 관음 사상, 부석사(화엄종 사찰) 건립 '화엄일승법계도' 저술
혜초	왕오천축국전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행) *자장: 황룡사 9층 목탑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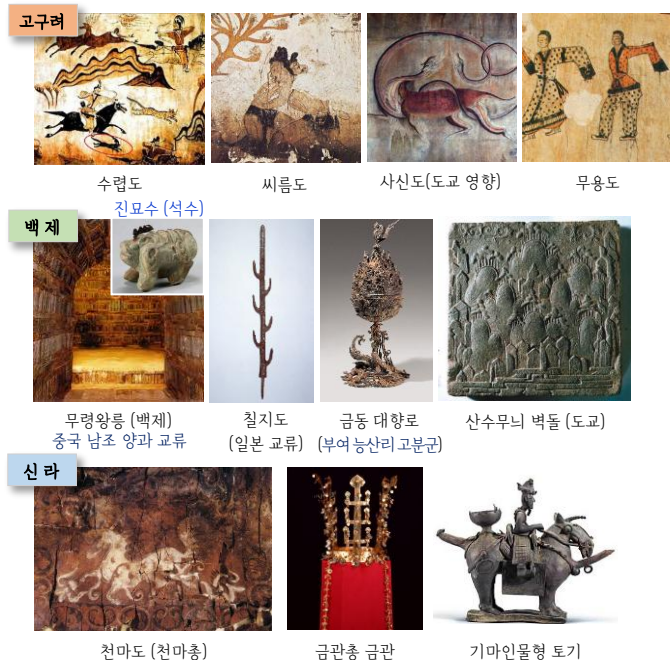
- **선종**: 신라 말기 유행, **실천적 경향**, 초형 미술의 쇠퇴
→ **구산선문 (9개의 산문 / ex. 가지산문, 참선 및 수행 강조)**- **풍수지리설**: 신라 말 선종 승려(도선)이 전래***도교 영향**: 고구려 (연개소문, 을지문덕의 오연시, 사신도) / 신라 (**화랑도**, 12지 신상)

백제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향로, 무령왕릉 지석)

→ **신선 사상 (불로장생, 초제 (하늘 제사))*** **결사표**: 진평왕(608)의 명령으로 **원랑 법사**가 작성한 수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외교 문서

■ 고대 국가의 고분

고구려	돌무지무덤(초기): 장군총 (장수왕릉) 굴식 돌방무덤: 벽화 존재, 모줄임 천장구조, 도굴이 용이 ex. 강서고분(사신도), 무용총(무용도, 수렵도, 각저총(씨름도))
백제	한성시대: 돌무지무덤(고구려 계통) ex. 송파 석촌동 고분 웅진시대: 굴식돌방무덤 → 공주 송산리 고분 매지권이 새겨진 벽돌무덤 → 무령왕릉 (중국 남조 양과 교류, 지석/석수 발견) 사비시대: 굴식돌방무덤
신라	돌무지덧널무덤 - 도굴 X ex. 황남대총, 천마총(천마도), 금제감장보검(서역과 교류, 호우명 그릇)
가야	대성동 고분 (김해, 금관가야) 지산동 고분 (고령, 대가야) 신라-고구려와의 우호관계
통일신라	굴식돌방무덤: 김유신 묘 (12지 신상)
발해	굴식돌방무덤: 정혜공주 묘 (모줄임 천장구조) ← 고구려 영향 벽돌무덤: 정효공주 (문왕의 딸) 묘 ← 당 영향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639)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금제 사리 봉안기 발견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백제 멸망시킨 공적을 기록

신라



분황사 모전 석탑

벽돌모양의 석재로 축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석탑

발해



발해 영광탑

벽돌로 쌓은 5층 전탑
당나라 양식의 벽돌탑



발해 석동

연꽃받침돌 위 둥근 돌기둥
발해국 수도인 상경성 발견

통일 신라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

신라 신문왕 (682)에 건축
통일신라 최초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
석가탑/무영탑
경덕왕(742~751)



경주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석가탑 옆에 위치
통일신라 예술의 정수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천인상(날아갈 듯한 모습)
8부신중(불교 수호신) 새겨짐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모서리를
자용사자로 지지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승려의 사리 봉안하는 승탑
신라 말 선종 유행 시기

고려



평양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전기 (다각다층석탑)
전체적인 비례와 조화 중시



개경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 (원나라 영향)
대리석/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고달사지 승탑

고려 전기 대표적 승탑
신라 양식 계승 (8각)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등근 공모양의 탑신 몸돌
고려 현종 (1017)

조선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세조 때 축조, 국보 제 2호
박지원, 이덕무 (백담파) 교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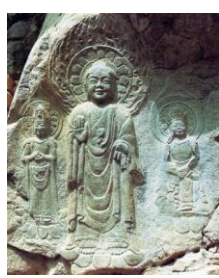
고구려



**금동연가7년명
여래입상**

고구려 독창성 가미

백제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부드러운 자태와 온화한 미소

신라



경주 배동 석조여래 삼존입상

온화하고 자비로운 불성 / 은은한 미소

삼국 시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일본에 양식 전파

통일 신라



**광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은은한 미소

발해



이불 병좌상

고구려 불상 조각 계승



■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 ① 발해 멸망 (926): 거란에 의한 멸망 이후 왕자 대광현이 발해 유민들과 고려로 귀순
- ② **공산 전투** (927): 신라가 후백제군(견훤)의 공격(경애왕 죽고 경순왕 즉위)에 신라 마지막 왕 고려 태조에게 지원 요청했으나, 고려군 또한 후백제군에 의해 대패
- ③ **고창 전투** (930): 고려가 후백제군을 크게 격퇴 (차전놀이의 유래)
- ④ **견훤 귀순** (935): 견훤이 만아들 신검이 아닌 넷째 아들인 견금강에게 왕위를 계승하려 하자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키, 이제 견훤은 고려로 귀순
- ⑤ **신라 항복** (935): 신라 경순왕 김부가 고려 태조에 항복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
- ⑥ **후백제 멸망** (936): 고려 왕건과 분노한 견훤의 합동 공격 (**일리천 전투**)

■ 고려 왕 업적

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안정: 취민유도, 조세제도 (세율1/10), 혹창(빈민구제) - 왕권강화: 『정계』, 『계백료서』, 훈요 10조, 『천수』 독자적 연호 - 회유: 역분전, 지방 호족과 훈인 정책, 사성정책(왕씨 성 하사) - 견제: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 - 복진 정책: 만부교 사건(거란 낙타), 서경(평양) 중시
혜종	- 왕건의 난 (왕규가 자신의 손자를 왕 등극 시도 → 왕권미약 반증)
정종	- 광군 30만 조직 / 광군사 설치 (거란침입 대비)
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권강화: 노비안검법, 과거제(쌍기), 황제 칭호, 광덕: 준통 연호, 제위보(빈민 구제 기금) 보현십원가(불교 교리) - 백관공복제 (지배층의 위계질서) / 개경 귀법사 설립 (주지: 균여)
경종	- 시정전시과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 인품도 고려) → but, 주관적 제도이란 비판
성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 정치: 최승로의 시무 28조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 (지방관 파견, 불교행사 억제, 유교-치국/불교-수신) → 국자감 정비, 중앙에서 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 - 통치 체제: 2성 6부(중앙관제), 12목(지방) 절도사 파견 - 향리 제도, 의창 (빈민 구제 기금, 기존 혹창 개편), 상평창 (물가 조절), 건원중보(화폐) 최초의 금속화폐 - 강동 6주 설치 (서희의 외교담판)
목종	- 개정전시과 / 천추태후, 김치양 역모 시도 → 강조의 정변 / 현종 올림
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통치 제도: 전국을 경기 + 양계(북계/동계) + 5도 나눔 - 도병마사, 2군(국왕 친위부대) 설치 - 거란 격퇴: 강감찬 귀주대첩 (1019, 3차침입) 나성 축조 (1029, 3차 침입)
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음전 (5품 이상 관리), 경정 전시과, 동서대비원, 유학 장려 - 양주(서울)를 남경으로 승격 (성종의 신라세력 견제), 경시서 설치

■ 중앙 정치 조직

도병마사	국방문제, '도평의사사'로 개편 (총령왕) → 최초 정무 기관
식목도감	법, 규칙 제정
중서문하성	재신 (2품 이상, 정책 심의/결정), 낭사 (3품 이하, 간쟁/봉박)
상서성	6부 통솔 (이/병/형/호/예/공)
중추원	추신/추밀 (2품 이상, 군사기밀), 승선 (왕명출납) cf. 조선: 승정원
어사대	관리의 비리 감찰, 탄핵 ★조선 '어사대': 사헌부
삼사	화폐/곡식의 출납 / 회계 ★조선 '삼사': 왕권 견제 기구
춘추관	역사 편찬 / 보관

★ **대간 제도**: '어사대' + '낭사'의 관원으로 구성 (간쟁, 봉박, 서경)

■ 지방 행정 조직

- 일반행정구역 (5도): **안찰사** 파견, 그 아래에 주/군/현 설치 **지방 호족 출신**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음** / 실제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
- 군사행정구역 (양계): 동계 / 북계, **병마사**를 파견
-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특수행정지구**) 주민 → 교육/과거 응시/거주 이전 자유 X
→ 일반 양민에 차별대우 / 신분 양민이나 천민 대우 (**신랑역천**)

■ 군사 조직

- 중앙군: **2군** (국왕 친위 부대, 웅양군+용호군) / **6위** (수도 경비, 국경 방위)
- 지방군: 16세 이상 장정
- 특수군: **별무반** (여진), **삼별초** (몽골)

■ 과거 제도

-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시행, 3년마다 시행, 관시(성균관)/한성시(한성부)/향시(지방)
- 문과: 제술과, 명경과 / 잡과: 기술학 / 승과: 승려
- ⇒ **음서 제도**: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은 관리 채용 특권 / 천거 제도

■ 문벌귀족 사회 (지방호족 + 신라 6두품 세력)

- 여러 세대 동안 고위 관료 배출한 문벌 귀족 형성 (왕실 결혼 → 가문 지위 세습)
- 음서/공음전을 통해 관직 세습, 불법적 토지 겸병

숙종	활구(은병),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 주전도감 (의천 제의) 서적포 , 속장경, 4별무반 (윤관의 건의)
예종	동북 9성 축조 , 국학 7개, 청연각, 보문각, 양현고 설치, 해민국 (의약), 구제도감 (질병치료), 구급도감 (재난 구제)
인종	금과 사대 체제, 이자겸의 난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의종	보현원 사건 → 무신 정변 발생

■ 문벌 귀족의 위기

- 1) ***이자겸의 난** (1126) ***이자겸: 예종, 인종에게 딸을 시집 보냄 (강력한 외척 세력)**
 - 금에 타협적인 이자겸 vs 왕의 측근 세력 (이자겸 권력 독점 반발)
 - 인종이 이자겸 제거 시도 → 이자겸/척준경 반란 → 이자겸/척준경 사이의 불화 → 인종이 척준경을 이용하여 이자겸 제거 → 척준경 탄핵 당함

- 2)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35) ***김부식: 개경의 대표적 문벌귀족**

개경파 (개성)	서경파 (평양)
*김부식 (보수) 사대적 유교사상 금에 사대정책 신라 계승	묘청/정지상 (개혁) 자주적 전통사상, 풍수지리설 서경천도, 금국 정벌 , 칭제건원 고구려 계승

-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 실패** → 묘청 세력이 서경에서 반란 ('대위국' 국호)
→ 김부식의 판군에 의해 진압



■ 무신정변 (1170)

[배경]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하급 군인들의 불만 야기

[경과] 보현원에서 무신정변 (1170) → 정중부/이의방 등이 문신 제거!

→ 의종 폐하고 명종 올림 → '중방'을 중심으로 정권 장악, 주요 관직 독점

→ 무신들 간의 권력 쟁탈전 → 농민/천민의 봉기

이의방/정중부 (중방) → 경대승 (도방) → 이의민 (중방) → 최충헌 (교정도감)

★ 무신집권기의 문신들의 반란

김보당의 난 (1173)

- 무신정권의 전복을 목적으로 문신 김보당이 무신들에 의해 폐위된 의종 복위 도모

조위충의 난 (1174)

- 북계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 공략 / 무신집권자 제거 시도했으나 실패 (1176 죽음)

■ 최씨 무신 정권

군사정변 합리화 → 실질적 개혁 X

- 최충헌: 교정도감 설치, 봉사 10조 개혁안 제시, 도방 (신변 경호)

- 최우: 정방(인사권), 서방(문신)

좌/우별초 + 신의군(몽골 포로)

⇒ 몽골과의 항쟁, 강화도 천도 → 삼별초 조직

대장도감 설치 → 팔만대장경 조판

■ 농민 천민 봉기

-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소'의 차별에 반발하며 봉기

- 김사미·효심 봉기: 무신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 / 신라 부흥을 외치며 봉기

- 만적의 난: 최충헌 사노비 '만적' → 천민의 신분해방 운동 (개경)

- 최광수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 10c 거란(요) 침입

① 1차 침입: 거란의 소손녕 - 고려/송 거래 X, 옛 고구려 영토 요구

⇒ 서희의 외교 담판 → 강동 6주 획득

② 2차 침입: '강조의 정변' 구실 침략 → 요군의 활약, but 개경 함락/현종 나주로 피난

목종 폐위, 현종 즉위

⇒ 고려의 친교 조건으로 거란 철수

③ 3차 침입: 고려의 친교 약속 불이행 → 거란 장수 '소배압' 10만 대군 침입

⇒ 강감찬 '귀주대첩' 승리: 나성 축조, 천리 장성

◆ 12c 여진의 침입

- 여진과 무력 충돌 → 윤관의 별무만 건의 (신기군, 향마군, 신보군)

⇒ 동북 9성 축조 (1107) (후에 방비 어려움으로 반환 / 예종)

- 여진의 성장: 금나라 건국 (1115) → 거란 멸망시킨 후 고려에 군신관계 요구 (1117)

→ 이자겸의 금의 사대요구 수용

◆ 13c 몽골(원)의 침입

- 1차 침입: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 '박서'의 귀주성 전투

몽골군 철수 이후 최우의 강화도 천도

부인사

- 2차 침입: 김윤후의 처인성(용인) 전투 → 적장 '살리타' 사살 (초조대장경 소실)

- 3차 침입: 팔만대장경 조판, 황룡사 9층 목탑 소실

- 5차 침입: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 승리 (충주는 국원경으로 승격)

- 6차 침입: 충주 다인철소 주민의 몽골 격퇴 (익안현으로 승격)

[결과] 몽골과의 강화 맺음, 개경으로 환도 (1270, 최씨 정권 몰락)

★ 삼별초의 항쟁 (1270~1273)

- 몽골 항쟁: 강화도 (배중손) → 진도 용장성 (배중손) → 제주도 (김통정)

⇒ 여/몽 연합군에 진압

■ 원 간섭기

- 영토 상실: 쌍성 총관부, 동녕부(서경/평양), 탐라총관부 설치

- 기관 변경: 2성(중서문하성, 상서성) 6부 → 1부(첨의부) 4사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 중추원 → 밀직사

- 내정간섭: 정동행성, 이문소, 다루가치 (감찰관)

- 결혼도감, 양방(매), 몽골품(변발, 호복, 족두리, 연지), 조흔 풍습, 노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

- 원나라의 역법 수시력 도입 (총령왕)

- 권문세족 득세/성장 (원과 친분 유지)

- 정치도감 (총목왕): 폐정 개혁 목표

★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1차: 1274년 / 2차: 1281년)

- 고려(김방경)와 몽골(홀돈/홍다구)로 구성된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두차례 시도했으나, 태풍(가미카제)으로 상당수 병력을 잃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패배



◆ 공민왕

- 반원 정책: 친원 세력 (기철) 숙청, 정동행성 / 이문소 폐지

2성 6부 관제 복구, 쌍성총관부 공격 (철령 이복 땅 수복)

- 왕권 강화: 정방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 (권문세족 토지/노비 몰수)

신돈 등용 → 신진사대부 진출 (정몽주, 정도전)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가 된 지방 향리 중심
성리학 수용, 불교 폐단 시정 노력

[결과] 권문세족 반발로 신돈 제거, 공민왕 시해, 원의 압력, 흥건적의 침입

■ 14c 흥건적, 왜구 침입

- 흥건적: 1차 - 이승경, 안우, 이방일이 서경에서 격퇴

2차 - 정세운, 이성계가 개경에서 격퇴

조선 세종 때 이종무

- 왜구: 최영 - 홍산(부여), 이성계 - 황산 대첩(1380), 박위 - 대마도,

최무선 - 화동도감 설치 → 진포전투 승리(1380)

(고려 우왕)

※ 관음포 전투: 고려 우왕 때 정지 장군이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



● 경제 정책

- 개경에 시전 설치, 먹/종이/금/은 수공업 제품 생산
- 양안(20년 주기): 토지대장 / 호적(3년 주기): 호구 조사
- 수취제도: 생산량의 1/10 납부, 상공(매년) / 벌공(수시)

● 토지 제도

- 역분전(940): 태조 시행, 인품/공로에 따라 경기에 한해 지급
- 전시과(토지 지급): 전시 (곡물 수취) + 시지 (땀값 조달) 지급
⇒ 수조권 지급 (소유권 X), 세습 불가 (사후 반납)



시정 전시과 (경종) → 개정 전시과 (목종) → 경정 전시과 (문종)

관직+인품 고려 (전·현직 모두) 관직만 고려 (전·현직 모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지급량 감소)

- 민전: 매매, 상속, 기증, 임대 가능 (소유권 보장된 농민의 사유지)
- 토지 종류: ① 공음전: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 (귀족의 경제적 기반)
② 한인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 (관인 신분의 세습)
③ 군인전: 군역의 대가로 지급 (세습 가능)
④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 (생활 대책비)
*기타: 내장전 (왕실 직할 토지) / 공해전 (지방 관청 토지)
외역전 (향리) / 사원전 (불교 사원 토지)

● 농민 생활

- 고려 전기: 농기구 및 시비법 발달 - 우경 일반화, 휴경 기간 단축
2년 3작 윤작법 보급 (밭농사), 남부 지방 일부 모내기법 보급
- 고려 후기: 원나라에서 '이앙'이 『농상집요』 수입, 문익점 (목화씨) → 목화 재배 시작

● 상업 / 대외무역

- 화폐: 성종(건원중보) → 속종(삼한/해동통보, 은병) → 주전도감(속종): 의천의 제의로 돈을 만들기 위해 새로 세운 관청
- 벽란도: 이슬람 상인 왕래 (국제 무역항) @예성강 하류
- 대송 무역: 수입 - 비단, 서적, 자기 / 수출 - 종이, 인삼, 토산물
- 거란/여진: 은 ↔ 농기구, 식량
- 일본: 수은, 황 ↔ 식량, 인삼, 서적
-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 (수은, 향료 판매)
- 경시서: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관서 / 팔관회 (토속신 제사)
- 관영 삼점 운영 (서적점, 다점) / 해음원: 국가에서 설립한 숙박시설 (파주)



● 신분 계급

- 문벌 귀족: 호족 + 6두품, 음서/공음전 0, 왕실 가문과 혼인
- 무신 세력: 무신 정변으로 문벌귀족 약화 (무신의 집권)
- 권문 세족: 무신정권 붕괴 후 친원적 세력, 도평의사사 장악, 음서로 신분 세습
- 신진사대부: 중앙으로 진출한 향리 출신, 성리학 신봉
- 양민: 백정 농민 (일반 농민, 민전 경작)

향/부곡/소에 거주, 많은 세금 부담, 거주 이전 자유 X

- 천민: 공노비 (외계 노비), 사노비 (외가 / 솔거 노비) 일반적 의미의 노비
독립된 경제 생활

- ★ 향도: 미륵을 만나 구원 받을 것을 염원하던 '매향'(향나무 문음) 활동 무리
→ 농작 조직으로 발전, 공동체 생활 주도

- ★ 개방적 여성의 지위: 일부일체제, 자녀 균등 분배, 연령순 호적 지배, 딸이 제사, 여성 호주, 사위/외손자까지 음서 혜택, 여성의 재가 허용

● 역사서

- 고려 전기: 『왕조실록』, 『7대 실록』 (태조 ~ 목종) → 현존 X
- 고려 중기: 문벌 귀족 (사대적 유교 사관), 김부식 『삼국사기』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 기전체, 신라 계승
- 고려 후기: 권문 세족 (자주적 사관)

무신 집권기: 『동명왕편』 (이규보, 고구려 계승), 『해동고승전』 (각훈, 불교사 정리)
원 간섭기: 『삼국유사』 (일연, 고조선 계승), 『제왕운기』 (이승휴, 고조선 계승)
기이편, 불교사 중심 단군 ~ 충렬왕까지

공민왕: 이제현 『사략』 (역사서)

기전체: 인물 중심 (본기, 열전, 지) > 삼국사기, 고려사

편년체: 연월(연도) 중심 >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조선왕조실록

기사본말체: 원인/결과 구분 > 연려실기술(이공익), 삼국유사

● 유학 교육 기관

- 관학: 국자감 (성종, 국립대학) → 신분별로 입학
향교 → 지방관리, 서민 자제 교육
- 사학: 최충의 9재 학당 (문헌공도) + 사학 12도 응성 → 국자감 위상 하락
⇒ 관학 진흥책: 숙종 (서적포), 예종 (국학 7개, 양현교, 청연각, 보문각)
인종 (경사 6학 정비), 충선왕 (성균관 개칭),
공민왕 (성균관 →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 성리학: 충렬왕 때 안향의 소개 → 이색 → 정몽주, 정도전에 계승 (『불씨잡변』)
- ★ 충선왕: 만민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함 (이제현 - 『사략』 @공민왕)
사립원 설치(왕명의 출판, 인사행정 관장) → '역용패설' 시화집 저술

● 불교

- > 의천의 불교 통합 운동 (대각 국사 - 고려 중기) 문종의 아들 / 『신편제종교장총록』 간행
- 전태종: 화엄종 중심의 교종 통합 (흥왕사), 국청사 창건 (선종 통합)
- 교관겸수: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론 연마와 실천 모두 강조
- 흥왕사에 교장도감 설치 → 속장경 (교장) 간행

> 무신집권기: 불교의 타락에 비판 운동, 결사운동

- 지눌: 수선사 결사 (@순천 송광사) - 승려 본연의 자세, 독경/선 수행, 참선 강조
정혜쌍수, 돈오점수 (선교일치 - 선종 중심의 교종 포용 / 내가 곧 부처)
- 요새: 백련 결사 (법화 신앙 - 자신 행동 진정한 참회)
- 혜심: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다), 심성도야 → 성리학 수용 계기
지눌의 제자 / 수선사 2대 사주

● 인쇄술

- [목판] ① 초조 대장경: 현종 때 거란의 침입 (목골 침입 시 소실)
② 속장경(교장): 의천이 고려/송/요의 주석서 정리, 교장도감 설치 (흥왕사)
③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 고종 때 몽골 침입, 강화도에서 조판
- [금속] 『직지심체요절』: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 공민왕 때 백운화상 경한 스님이 저술(@청주 흥덕사), 우왕 때 금속활자 인쇄



『직지심체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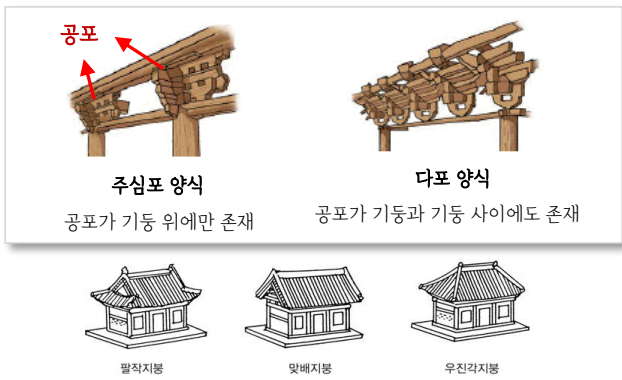


『초조대장경』



● 건축

- **주심포 양식** (고려 전기): 공포가 기둥 위에만 / 기둥 굽고, 배흘림 양식
- **다포 양식** (고려 후기): 공포가 기둥 사이에도 / 불교의 타락 (원나라 양식)



안동 봉정사 극락전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건물 옆면에 아미타여래 불상
공민왕 화재 → 고려 우왕 때 재건



예산 수덕사 대웅전
고려 충렬왕 34년 (건립 연도 명확)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 기타 건축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백제)



충남 부여 무량사 극락전
(통일신라 - 아미타여래삼존상 봉안)



충남 보은 법주사 팔상전
(조선 - 유일 5층 목조탑)

정유재란 때 소실 / 인조 때 중건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조선 숙종)



충남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조선 후기)

★ 석탑

[고려 전기]	→	[고려 중기]	→	[고려 후기]
기단의 보편화 대부분 5층 석탑		송의 영향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원의 영향, 목조 양식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



● 불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신라양식, 금 코팅)



광주 춘궁리 철불 or
철조석가여래좌상
(부처 좌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인체 비례 불균형)



안동 이천동 석불
(인자한 미소)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지역적 특성, 대형 불상)

● 청자

고려: 11c 순수 청자 → 12~13c 상감 청자 → 원간섭기 (퇴화)

조선: 15c 조선 분청사기 (좁은 입구) → 16c 백자 유행



청자 참외모양 병
(고려 전기)



청자 상감은학문
매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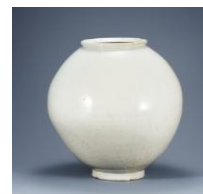
청자
칠보투각 향로



나전칠기 염주합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백자 향아리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조선의 건국

[경과] 명의 철령위 설치 → 고려 우왕의 요동 정벌(최영) → **위화도 회군** (1388)
 → 우왕 폐위 / 공양왕 옹립 → **과전변** 실시 (1391) → 이방원의 온건파 정몽주 살해 (1392.4)
 최영 장군 유배 후 처형 (1389) ↓
 경기 지역에 한하여 토지 지급 → 조선 건국 (1392.8) (한양 도읍)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태조 (1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전의 개혁: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 재상 중심의 정치, 『고려국사』 편찬 (조선 건국의 정당성) - 『불씨잡변』 (불교 폐단 비판/성리학 옹호), 지방 8도 (관찰사 파견), 도첩제 실시 (역물 정책/승려 수 제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작성 (천문도) ⇒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이방원(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에게 피살
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평의사사 → 의정부 (6조 직제제), 사간원 독립, 사병 철폐 - 호패법, 신문고, 서얼차대법, 혼일강리역대국 지도 (동양 최고 지도) 주자소 (인쇄기관) 설치 계미자(활자) 주조
세종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부산, 제포, 염포) - 4군(최윤덕), 6진(김종서) / 대마도 정벌 (이종무) / 3포 개혁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 측우기, 혼의/천의, 자격루, 앙부일구, 갑인자(활자) 주조 -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칠정산』 내·외편 - 『의방유취』, 훈민정음, 조선통보(1423), 계해 약조 (무역량 제한)
단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조(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정권 뺏김 (김종서/황보인 제거)
세조 (1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권강화: 6조 직제제 부활, 경연 폐지, 집현전 폐지 / 직전법 시행 (행정구역 체계) - 단종 복위 운동 (1456): 사육신(6명의 신하) 제거 - 『경국대전』 편찬 시작, 인지의/규형(토지 측량 기구), 오가작통법 (해안사 장경판전, 간경도감(불교경전 간행) 설치) - 숭불 정책: 『월인석보』 (석가모니의 생애/불경), 원각사 10층탑 건립, 해인사 장경판전, 간경도감(불교경전 간행) 설치 ※ 이시애의 난: 함경도 걸주군에서 세조 집권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
성종 (1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국대전』, 편찬/반포, 홍문관(집현전 계승), 경연 부활 - 관수관급제 실시 (국가에서 세금 징수 후 관원들에게 지급) - 『동국여지승람』(지리서) / 『동국통감』(고조선~고구려 역사서) / (음악서적) 『삼국사절요』(단군~삼국시대) / 『동문선』(시와 산문) / 『악학궤범』 - 『금양잡록』(강희맹, 농서) / 『국조오례의』(국가 행사 5가지 의례) 『해동제국기』 (신숙주, 일본-해동제국 역사서)

중앙 행정 조직

- 의정부 (국정 총괄, 재상 합의제) / 6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 **승정원** (왕명 출납) ※ 승정원: 은대, 후원이라 불림
- **의금부** (중대 범죄)] **왕권 강화 기구**
- **사헌부** (감찰 기구) ※ 대간 (사헌부, 사간원): 간쟁권/서경권 행사
- **사간원** (간쟁, 서경)] **삼사 (권력 남용/부정 방지)**
- **홍문관** (자문기구, 문서 관리) ※ 춘추관: 실록 보관/관리
- 별칭: 옥당, 옥서, 영각, 정연각 ※ 한성부: 수도의 행정/치안 담당 (시정 역할)
- ※ 사역원: 외국 사신 통역
- ※ 관상감: 천문, 지리, 기후 등 사무 담당

지방 행정 조직

- 전국 8도 / 부·목·군·현 설치 (향·소·부곡 등 특수행정 구역 폐지)
-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 (행정/사법/군사권 보유)
- ※ **유향소** (향촌 자기 기구), **경재소** (정부와 유향소의 연락 기구)

수령 보좌 / 향리의 비리 감찰 / 좌수와 별감
 이시애의 난(세조) 이후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다시 부활

사림 등장 / 봉당 정치 성립

신진사대부 분열	급진 개혁파 (정도전, 조준) → 관학 중시 → 계유정난 주도 → 훈구
	온건 개혁파 (정몽주, 이색) → 사학 중시 → 계유정난 반대 → 사림

● 사화 → 훈구/사림의 대립 속에서 사림이 입은 화

- ①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일손 사초 수록) 빌미로 훈구 세력이 비난 (연산군) ⇒ **김일손 등 사림 몰락**
 - ② **갑자사화**: **폐비 윤씨** 사사 사건 → 관련자 축출 (**사림의 피해**) (연산군) 연산군의 어머니
 - ③ **기묘사화**: **조광조**의 급진개혁정치 → 훈구 반발 (조광조 모함) (중종)
 -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소학 보급, 향약 실시, 방납 폐단 시정
 - 조광조 제거, 사림의 피해
 - ④ **을사사화**: 소윤(윤원형)이 대운(윤임) 몰아내고, 정국 주도 → 왕실 외척 간 다툼 (명종) → 명종 때, 『임격정의 난』 발생 배경
- ※ **양재역 벽서 사건(정미사화)**: 을사사화 이후 소윤(윤원형) 세력이 대운 세력을 한번 더 숙청!

● 임진왜란 (1592)

- 국정 전반 총괄 기구 **세종방략(전시 동원체제) 수립**
- 삼포왜란(중종) → **비변사** 설치 (일본과의 외교 단절) → 을묘왜변(명종) 발생
- [침입] 부산진(정발), 동래성(송상현) 함락 → **충주 탄금대 전투**(신립) 패배 **배수의 진** → 한성 함락 → 옥포 해전 → 평양성 함락 → 선조는 의주로 피신!
- [반격] **한산도대첩**(이순신) → **진주대첩**(김시민/곽재우) → 조·명 연합군 **평양성 탈환**
 - 행주대첩(권율) → 선조 한양 복귀 → 휴전 협상 진행
- * 중앙군: **훈련도감**(유성룡 건의) → **삼수병** 편제 (포수, 사수, 살수)
- * 지방군: 속오법 실시 **금로0, 직업군인, 상비군(의무병)**
- * 의병장 활동: 조현(금산전투) / 김천일 / 정문부 / 사명대사(유정)

● 정유재란 (1597)

- 휴전회담 결렬, 이순신의 명량해전 (1597), **노량해전** (1598) 승리
 - ⇒ 왜란 이후, 국가 재정 궁핍 (납속책, 공명첩 시행 → 신분제 동요) / **비변사 강화**
 - ⇒ **기유약조** 체결 (부산포에 왜관 설치/무역 허용), **조선 통신사** 파견 (일본에 문물 전파)
- 세계 기록 유산 등재

◆ 광해군의 중립외교 (1608)

-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 → 사림세력의 불만
- 허준 『동의보감』, **대동법** 실시(이원익 건의), 성곽 수리, 토지 대장(양안)/호적 정리

★ 인조반정 (1623): 서인 세력 주도하여 광해군/북인 축출 → 인조 즉위 (친명배금 정책) → 광해군의 『폐모살제』 비판 (어머니 인목 대비 폐위 / 동생 영창 대군 죽임)

◆ 호란 (인조) → 이괄의 난 (인조반정 이후 공신 책봉 불만)

- ① **정묘호란**(1627):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에 후금 자극 → 후금의 침입 → 의주(**이립**) / 철산(**정봉수**@**용골산성**)의병 활약 / but,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 ② **병자호란**(1636): 후금이 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군신관계 요구 → 조화론(최명길)과 조전론/척화론(윤집) 간의 대립! → 결국 주전론 우세
- 양명학, 실리 추구 **성리학**, **대의명분** (김홍도 - 강화도 향전) (삼전도의 굴욕)
 → 청 태종의 침입 → 한성 함락 → 인조 남한산성으로 피신 → 청군에 항전 (임경업 - 백마산성 전투) (김준겸 - 광교산 전투)
- **연행사** 파견: 청나라에 보낸 사절/사신단 (연 1회) - 박지원, 홍대용 (북학파)
 기축복사(복벌 추진 찬성)
 ⇒ **복벌 운동**: **효종의 조종부대 양성** (송시열, 송준길, 이완) / **어영정** 개편
- 나선 정벌** - 청의 지원 요청으로 러시아가 공격 (1차 - 변급, 2차 - 실패) (러시아) **흑룡강 전투**



▣ 사회 / 경제 / 문화

● 신분 구조

첩에서 태어난 양반의 자손, 문과 응시X

- 종인: 기술관(직역 세습) / 서리 / 향리 / 서얼 등으로 구성

→ 역관(통역사), 의관(의사), 무역으로 부를 축적함

- 상민: 농민/수공업자/상인 등의 대부분 백성

- 천민: 공노비, 사노비로 구성 / 재산취급, 매매상속 가능, 일천즉천

★ 여성의 지위: 아들, 딸 구분없이 태어난대로 호적 등록

자녀들이 돌아가며 제사 지냄 (아들이 없으면 딸이 직접 제사)

★ 과거시험: 원칙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문과	생진과(소과): 생원시, 진사시 문과(대과):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
무과	무관 선발 / 문과와 동일 절차
잡과	기술과 선발 / 해당관청에서 실시



● 토지 제도

토지세(1/10) 수취 가능

공양왕 ① 과전법: 전/현직 관리 모두 수조권 지급, 소신전/홀양전 지급

세조 ②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수신전/홀양전 폐지

성종 ③ 관수관급제: **관청에서 수조권 대리 행사** 직접 수취 불가

명종 ④ 직전법 폐지: **지주전호제** 강화, 수조권 X, only 녹봉!

자신의 소유지를 농민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음

● 수취 제도

- 전세: 세종 때 **공법** 실시 -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세금 차등 징수
(전본 6등법) (연본 9등법)

- 공납: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는 세금 → 대납, 방납이 성행 (16세기)

- 역: 16~60세 양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노동력 징발 → 대립과 **밧군 수포제** 성행
(포를 받고 군역 면제)

*조운제: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서울로 운반하기 위한 교통로

● 경제 활동

- **관영 수공업**: 장인을 공장안에 등록시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 **시전 상인**: 왕실/관청에 물품 공급 대신, 특정 물건에 대한 **독점 판매권** 부여

- 장시: 15세기 후반 등장, 일부가 정기시(5일장)으로 발전

물가조절기구

★ 빈민 구제 기구 - 의창/식량창 → 환곡제 실시 → 사창제

- 의료: 해민국, 동서 대비원, 동서 활인서

● 교육 제도

향교	지방에 설립된 관립 중등 교육기관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
성균관	조선의 최고 교육 기관 / 석전대제 거행 (성현 모심) 소과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가 입학 대성전 (성현의 위패 봉안), 명륜당 (유교 경전 강의) 대사성(관직) 을 중심으로 좌주 , 직강 등의 관직

● 대외 사신 속소

- 모평관/태평관 (중국), 북평관 (여진), 동평관 (일본)

※ **무역소**: 여진 무역 / 경성과 경원 2군에 설치

※ **회담점 쇄환사**: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국교 재개 요구에 대한 회담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송환해 올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

★ 향약 (향촌의 자치 규약)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 (4대 덕목) → 이황/이이에 의해 널리 보급

⇒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 사림 세력의 지위 강화 (지방 농민 지배 강화)

⇒ 직위: 도약정(향약의 수장)/부약정, 약문/약계/약법

★ 서원

도산 서당 설립 / 기대승, 사단칠정 논쟁 전개

-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

⇒ 사림세력의 후진 양성(교육), 사림의 여론 형성 주도 / **선현 제사**, 유학교육 담당

● 성리학의 융성 - 주리 철학: 이언적 (이론 중시)

- 주기 철학: 서경덕 (현실 중시)

이황 (1502~1571)	이이 (1536~1584)
주리론 (동인)	주기론 (서인)
근본적, 이상적	현실적, 개혁신
관념적 도덕 세계 중시	경험적 현실 세계 중시
위정척사 사상, 일본 성리학	실학사상, 개화사상
『주자서절요』 / 『성학십도』	『성학집요』, 『만언봉사』 (10만 대군)
예안 향약	해주 향약
동방의 주자	동방의 공자 (동호문답)

수취제도의 개혁

★ **동몽선습**(박세무): 천자문을 다 배운 아이가 서당에 가기 전에 배우는 예습 교재

훈몽자회(최세진): 한자 3,360자에 뜻과 음을 훈민정음으로 단 것 (교육 교재)

동몽수지(주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 정리

★ 조선왕조실록

- 태조~철종,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 (**편년체**)

- 사초·시정기 중심 / 승정원 일기, 비변사등록 참고

cf. 『고려사』(1451, 기전체, 세종) / 『고려사절요』(1452, 편년체, 문종) /
『동국통감』(1485, 고조선~고려말, 성종)

● 공예와 예술

- 도예: 분청사기 (15c) → 백자 (16c)

- 그림: 15c: 몽유도원도(안견), 고사관수도(강희안)

16c: 사군자, **초충도 (신사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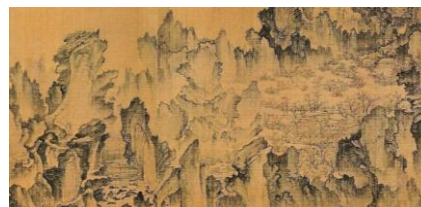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청화 백자 매죽문 향아리



백자 달 향아리



몽유도원도 (안견)



고사관수도 (강희안)





● 통치 체제 변화

- **비변사 기능 강화**: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 총괄 기구**로 부상
세도 정치기에는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 역할
⇒ 왕권 약화, 의정부/6조 기능 축소
- 군사제도: 중앙군(5군영) + 지방군(속오군) ←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든 신분 편제
(훈련도감/의영전/금위영/총융청/수어청)
↓
후금 침입 대비

◆ 속종 (1674~) - 환국 발생

- ① **경신환국**: 영의정 허적(남인)의 천막 무단 사용 → 남인 몰락, 서인 집권
남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서인 → 노론/소론으로 분화
- ② **기사환국**: 장희빈 아들 원자 책봉 → 서인 세력 반대 / 인현왕후 폐위
→ 서인세력(송시열) 몰락 → **남인 집권** (서인 송시열 퇴출)
- ③ **갑술환국**: 서인의 인현왕후 복위 추진 → 복위 성공 → **서인 집권**
[업적] - 금위영 설치 → 5군영 체제 완성 / **안용복**의 울릉도, 독도 수호
- **상평통보** 전국적 유행 / **백두산 정계비** (조선/청 간의 국경 지정)
※ **대보단 설치**: 임진왜란 당시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을 제사 (창덕궁 후원)

◆ 영조 (1724~) - 탕평 정치

- 탕평 교사, **탕평비** 건립 → 이인좌의 난 (소론 세력의 탕평 정책 반대)
- 왕권 강화: **서원(봉당 근거지) 정리**, **이조 전랑의 권한** ↓ (후임자 천거 관행 폐지)
- 삼심제, **균역법** (2필→1필), **신문고** 부활, 정계전 준설 공사
- 『**속대전**』 / 『**동국문헌비고**』 (역대 문물 정비) / 『**택리지**』 (이종환)
→ 경국대전 개정/증보하여 편찬한 법전

◆ 정조 (1776~)

- 해경공 홍씨: 정조 어머니 / 현릉원: 사도세자 무덤
- 정조의 아버지
- 사도세자의 죽음: 벽파/시파 갈등 (벽파: 영조의 처분 당연 / 시파: 처분 반대)
- 왕권 강화: **규장각** (박제가, 유득공, 정약용 → 검서관 등용 / 초계문신제 주관)
장용영 (친위부대), **초계문신제도**, **화성 건립** (사도세자의 묘)
도성: 본영 / 수영 화성: 외영
"수령이 향약 직접 주관" → 지방 사림 세력 약화
- 신해통교, 『무예도보통지』, 『대전통편』, 『동문회고』, 『택리지』
자유로운 상행위 (육의전 유지)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
경국대전 + 속대전 + 추가 법령 통합/편찬,
각각 원/속/증으로 구분 cf. 대전회통 - 고종 (홍선대원군)

● 수취 제도 개편

- ① **영정법** (인조, 1635)
- 풍흉에 관계 없이 토지 1결당 미두 4두로 고정
→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증가 → **농민의 부담 가중!**
cf. 전분 6등, 연분 9등법 → 1결 당 4~20두
- ② **대동법** (광해군~숙종)
- 『**선해청**』을 설치,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무, 무명, 동전 대납
-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
⇒ **광해군 때 경기도 시험 운행, 숙종 때 전국적 시행** (100년) → **상평통보 유행**
⇒ '공인' 등장, 이후 '**도고**'로 성장 / 지방의 장시 등장
관청에 공가를 받고 매점매석
특산물 납품 (독점적 도매 상인)
- ③ **균역법** (영조)
- 1년에 **군포 2필에서 1필로 감소**
-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추가 부담** (결작 / 1결당 2두)
『**선무군관**』 칭호 부여 (군포 1필 추가 납부), 어장세, 선박세

● 농업 기술의 변화

- 모내기법 (이앙법) 금지령에도 전국적으로 시행 / **이모작 확대** (벼/보리)
- '**광작**' **성행** (농가의 소득 증가, but 소작 농민은 소득 감소)
- **상품 작물** (인삼, 담배, 목화, 채소, 약초) 재배
- 쌀의 상품화 (밭 → 논)

● 상업의 발달

→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육의전 제의 금난전권 폐지

- ▶ **관상 - 시전상인**: 육의전 중심, **금난전권** 소유 (신해통공 이전)
- 공인: 대동법 시행 후 등장, 도고로 성장 (독점적 도매 상인)
- **보부상**: 지방 장시 돌며 활동 (지방 장시 연결 역할)
- ▶ **사상 - 한양 (난전)**: 무허가
- 만상 (의주): 수출- 은, 인삼 / 수입- 비단, 약재
- 유상 (평양): 대청 무역
- 송상 (개성): 인삼 재배, 중계무역, '**송방**' 설치
- 경강상인 (한양): 배를 이용한 운송
- 내상 (동래): 수출- 인삼 / 수입- 은, 유황, 구리

※ 속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 (상업 발달에 기여)※ **초량 왜관**: 일본과 교역 (@부산 / 기존 두모포 왜관을 이전한 신관)

● 광업의 발달 (금, 은)

- 조선 전기: 정부 주도 ⇒ **덕대**가 광산을 주도적으로 관리
- 조선 후기: 민영화, **설점수세제-효종** (민간의 광산 개발 허용)

● 신분제 등요

- 상민의 신분 상승 운동: **납속책** / **공명첩**을 통한 신분 상승
→ **양반 수 증가, 상민 수 감소**
- 노비의 신분 상승: **노비종모법** 실시 / 공노비 해방 (순조)
모의 신분이 자녀 신분 결정 (모계) cf. 일천죽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
→ 자녀는 무조건 천민

★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 강화 (조선 후기)

- 큰아들 제사 전담, 재산 상속 큰아들 우대, 아들 없을 시 양자 입양 일반화

◆ 세도 정치

- 순조(노론 벽파 세력), 헌종(풍양 조씨), 철종(안동 김씨)
⇒ 봉당 정치 붕괴, 의정부/6조의 유명무실화, **비변사 권한 ↑**, 부정비리 ↑

★ 삼정의 문란

- **전정(전세) / 군정(군포) / 환곡의 문란** → 농민 수탈 심화 / 농민 봉기 발생의 배경!
- 민간 신앙 (미륵, 무격신앙) / 예언 사상 (『정감록』, 도참설) 유행!

★ 농민 봉기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참여

- **홍경래의 난** (1811, 순조): 서북인(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청천강 이북 8군 점령)
- **임술농민 봉기** (1862, 철종): 물락 양반 출신 '**유계준**' 중심 봉기
진주를 중심, 북쪽 함흥 / 남쪽 제주까지 전국적!
⇒ 사건을 수습하고자 **안핵사(박규수)** 파견, **삼정이정청** 설치



● 천주교 탄압

- 17c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에 의해 '서학'으로 처음 소개 (평등, 내세 신앙)
- 남인계열의 일부 실학자(이승훈)가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

- ① 신해박해 (정조, 1791): 양반 윤치홍이 모친을 화장 (제사 거부)
- ② 신유박해 (순조, 1801): 노론 벽파 세력이 남인 시파 탄압 (정약종/이승훈 순교)

황사영 백서 사건: 천주교 신자 황사영이 신유박해에 반발하여 조선의 천주교 탄압 실상을 명주천(백서)에 적어 청나라에 고발하고 조선의 청나라 속국화 추진하려다 실패

- ③ 기해박해 (헌종, 1839): 서양인 신부 처형
- ④ 병인박해 (흥선대원군): 프랑스 선교사 교섭 시도 이후 처형

● 동학

『동경대전』, 『용담유사』 저술

- 1860년대 최제우 창시 (불교/성리학 부정, 천주교 배척)
- 유교/불교/선(도교)의 내용에 민간 신앙의 요소 결합
- '시천주' / '인내전'
- ⇒ 최제우 처형 (1864), 제 2대 교주 '최시형'

● 성리학의 변화

성리학 교리 어지럽히는 사람

- 윤휴, 박세당 등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 → 서인에 의해 '사문난적' 취급!
- 노론(호락 논쟁)
 - 호론(충청도): 인물설 이론, 주기론 (위정척사)
 - 인물과 사물의 본성 다르다!
 - 낙론(서울): 인물설 동론, 탄력적 성리학 (복학, 개화사상)
 - 인물과 사물의 본성 같다!

『가례집람』 (김장생): 이이의 성리학 + 송익필의 예학 계승 / 예학을 조선에 맞게 정리

● 양명학

- 성리학의 절대화 비판, 실학의 실천성 강조, 소론 학자를 통해 수용
- 심즉리, 지행합일설, 치양지설 (인간 상하 준비의 차별 X)
- 18c 초 정제두: 강화도에서 후진 양성 (강화학과 창시 - 이광사, 이광두, 이견창)
- 박은식, 정인보 양명학에 영향 받은 인물

● 실학

- 중농주의 (18c 초반): 유형원 → 이익 → 정약용
- 중상주의 (18c 후반): 유수원 → 홍대용 → 박지원 → 박제가

중농학파

중상학파

유형원	『반계수록』, 군전론 주장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 한계: 직업적인 우열, 상인/노비 차별
이익	성호학과 (『성호사설』 저술), 한전론 (기초 토지 제공) 육두론 (6가지 폐단), 폐전론 주장
정약용	『여유당전서』(정인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초기 '여전론' 주장 → 후기 '정전론' 주장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
유수원	『우서』 저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전문화 주장 선대제 수공업 (상인이 생산자 고용)
홍대용	『임하경륜』, 『의산문답』 저술, 중화사상 비판, 지전설 주장 문벌제도 철폐 강조 → 담헌서 (과거제 폐지), 헌헌의 제작
박지원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 저술, 수레/선박 이용 주장, 서양문물 도입 주장 『양반전』, 『허생전』, 『호질』 (한문소설) → 양반 문벌 비판
박제가	박지원의 제자, 『북학의』 저술 (청의 문물 적극 수용) 수레, 선박 이용 주장 / 절약보다 소비 권장 (우물론)

● 국학 연구

- 역사

18c	『동사강목』 (안정복)	고조선 ~ 고려 말, 삼한정통론
	『발해고』 (유득공)	발해사, 만주까지 확대 '남북국'이라는 용어 사용
	『동사』 (이종휘)	고려/발해, 기전체
	『연려실기술』 (이금익)	조선의 정치, 문화 정리
19c	『해동역사』 (한치윤)	고조선 ~ 고려 말, 외국자료 인용
	『금석과안록』 (김정희)	북한산비 → 진흥왕순수비 밝힘

- 지리

동국대지도 (정사기)	최초로 100리 척 사용
대동여지도 (김정호)	10리마다 눈금, 전체 22첩의 목판본
동국지리지 (한백겸)	역사지리지 (고대지명, 고구려 역사 고증)
택리지 (이종환)	인문지리지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풍속, 인심)
조선팔도고금총람도 (김수홍)	전국의 지리 정보에 주요 인물 + 역사적 사실

※ 『구수략』 (최세정): 주역을 바탕으로 정리한 수학책

● 서양 문물 수용

- 세계 지도 '곤여만국전도' (이광정)
- 서양인 표류: 벨테브레 - 훈련도감 소속 무신 → 서양식 대표
하멜 - 네덜란드 귀국 후 '하멜 표류기' (효종)

● 기타

- 17c 동의보감 (왕해군, 허준), 침구경험방 (인조, 허임)
- 18c 마과회통 (영조, 정약용): 홍역의 병증/치료법 서술, 종두법 소개
- 19c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 구분
- 정약용 (거중기, 배다리) / 농서편찬 (이앙법 보급 - 『농가집성』, 벼농사)
- 이익 (서양 천문학 연구) / 김석문 (지전설 최초 주장) / 최한기 『지구전요』
- 홍대용: 무한 우주론 → 성리학 세계관 비판 / 구황촬요 (명종, 기근 대비)
- 이수광: 『지봉유설』 집필 ← '천주실의'(천주 교리서)를 담음

● 현실풍자 문화

- 판소리 (신재효), 탈춤 (탈놀이, 산대놀이)
- 한글소설: 홍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 한문학: 정약용 (삼정의 문란 비판하는 한시, 애절양)
- 『시사』 조직 (중인중 시인들의 문학 활동)
- 박지원 한문 소설 (양반전, 허생전, 호질)

● 서화 및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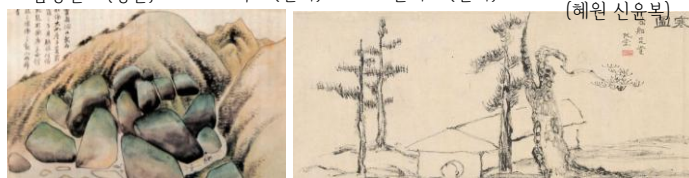
노상알현도 (백곡 김득신)



인왕제색도 (점재 정선) 옥순봉 (단원 김홍도) 씨름 (김홍도)



금강전도 (정선) 호작도 (민화) 문자도 (민화) 월하정인/단오통정 (혜원 신윤복)



영통동구 (표암 강세황) 세한도 (추사 김정희)



◆ 홍선대원군 (1863)

cf. 속대전 (영조), 대전통편 (정조)

- 왕권강화: 세도정치 X, 능력 중심 인재, 『대전회통』 / 『육전조례』 (법전)

비변사 X, 의정부/삼군부 부활, 서원 정리 (47개) / 만동묘 포함

→ 대원군 하야 후 만동묘 복구

경복궁 중건 → 원납전, 당백전 발행 / 묘지림 벌목

- 민생안정책: 정전 개혁(양전사업, 윤결 색출) / 환곡제 → 사창제 / 호포법(제) 실시
토지 대장에 빠져 숨겨진 토지

병인박해 (1866)	프랑스 선교사 및 신자 8,000명 교도 처형 (@절두산 순교성지)
제너럴 셔먼호 (1866)	미국 평양에서 통상 요구 →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 제너럴 셔먼호 격침 (@대동강)
병인양요 (1866)	프랑스 로즈 제독 함대 강화도 점령 → 외교장각 문화재 약탈 문수산성(한성근), 정족산성(양헌수) 활약 (군함 격퇴)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	독일의 통상 요구 거절 → 오페르트가 무장병력 동원하여 남연군 묘(충남 덕산) 도굴 시도 → 주민 항거로 실패 홍선대원군 아버지
신미양요 (1871)	미국 군함 강화도 침입 → 어재연의 조선 수비대 (광성보) 로저스 제독 *수자기: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한 조선군 지휘관 깃발
척화비 (1871)	전국 각지에 건립, 위정척사 정신 반영

◆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규약, 1876)

왜양일체론 주장 (개항 반대)
을미사변, 단발령 반대
을사늑약 → 을사 의병 주도 → 체포, 대마도 유배
(+임병찬 @태인)

[배경] 최익현의 탄핵 상소 → 홍선대원군 하야 / 민씨 정권 시작

통상개화론 (박규수, 오경석) / 윤요호 사건 (일본의 강화도 군사도발)

[내용]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연무당(훈련장)에서 체결

3대 항구(부산/인천/원산) 개방,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허가

★ 부속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개항장 일본 거주민의 거주 지역 (10리)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사용, 외교관의 국내 자유 여행

조·일 무역규칙(1876): 무관세, 무항세, 양곡의 무제한 수출

* 두모포 수세 사건(1878): 개항장인 부산 동래부 두모진에서 조선 정부측과 일본인 상인들
사이에 무관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

● 개화 정책

- 수신사 파견: 1차 김기수 (1876) → 『일동기유』 저술

2차 김홍집 (1880) → 황준헌 『조선책략』 수입 → 일본 근대 문물 시찰

- 박규수 (양반출신, 청의 앞무운동 견학), 오경석 (중인/역관 출신), 유흥기

⇒ 통리기무아문 (개화추진 핵심기구), 12사 설치

군제개편: 5군영 → 2영 (무위영, 장어영) / 신식 군대 '별기군' 창설

- 사찰단 파견

1881.04 조사사찰단 (신사유람단): 일본 시찰(비밀리 파견), 전한국 설치
1881.11 연선사 (김윤식): 청 시찰, 재정 부족 1년 만에 귀국, 기기창 설치
근대식 무기 공장

★ 근대 시설: 전한국(화폐 발행), 박문국(한성순보 발행), 기기창(신식 무기 제조), 우정국(우편)

1883

1883

1883

1884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배경] 2차 수신사 김홍집이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유보

[반대]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흥재학의 만연척사소

→ 청의 알선 (조선이 청의 종주국 의도), 서양과 맺은 최초 불평등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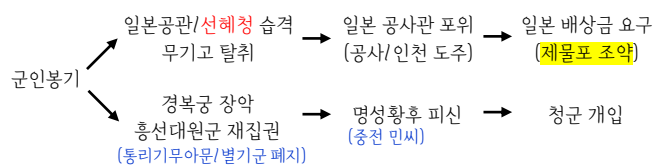
[내용]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거주조점, 낮은 세율의 관세 조항 규정

다른국가와 문제 시 계약 상대방이 문제 해결 지원

→ 사찰단 파견 - 보빙사 (민영익): 미국 순방, 일부는 유럽 (유길준)
1883.7 서양 최초 파견

● 임오군란 (1882)

-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녹봉 미지급, 실직) ↔ 신식 군대 '별기군'



1882년 → 2년 뒤 1884년에는 100리 제한
[결과] 제물포 조약 (일본 경비병 주둔), 조·일 수호 조규 속약 (거주지 제한 50리)

3차 수신사 (박영효)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 - 청 상인의 내지 통상 특권 허용

[배경]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의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 강화

[내용]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 치외 법권, 청 상인의 내륙 진출 허용
한성 내 양화진 상업 허용

★ 조·일 통상장정 (1883): 일본 상품 무관세 → 관세 추가, 방곡령, 최혜국 대우 인정

↓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
쌀 수출 금지 시 일본 영사관에게 1달 전 선포

⇒ 임오군란 이후 청에 대한 개화 속도/방법에 따른 입장 차이

온건 개혁파 (수구당, 사대당)	급진 개화파 (개화당, 독립당)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김육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민씨 정권, 청과 사대	청의 내정 간섭 반대
동도서기론, 점진적/소극적 개혁	급진적/적극적 개혁
청의 양무 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 개화 정책 반대 운동 - 위정 척사 운동: 성리학 수호 / 천주교와 서양 문화 배격

통상 반대(60년) → 개항 반대(70년) → 개화 반대(80년) → 항일 의병(90년)

척화추전론 (이항로) 왜양일체론 원생들의 집단적 상소
개항불가론 영남만인소 (이만손)
(최익현의 도끼 상소, 유인석)

● 갑신정변 (1884)

[배경] 급진 개혁파가 일본의 차관 지원 약속 (3백만엔 + 150명 병력)을 받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습격 (서구식 근대화 목표)

[경과] 고종/왕비를 경주궁으로 피신시킨 후 민씨 측근/척족 제압 ⇒ 청의 원군 요청

개화당 정부 수립 (14조 정강 발표) → 청군의 개입 / 일본군 철수(약속 미이행)
(위안스카이) 3일 천하

(청과의 사대만절 / 인민평등권, 지조법 개혁, 모든 재정 호조 관할)

[결과] 한성 조약 (일본에 배상금, 공사비용)

텐진 조약 (청/일 양국 군대 공동 철수, 조선 파병 시 상대국에 통보)
→ 추후에 청·일 전쟁 발발

[의의] 입헌군주제, 평등 사회 / 위로부터 개혁 (민중X), 일본 의존, 청의 내정간섭 강화

● 중립론 대두 (1880년대)

영 ↔ 러 간의 갈등
러시아 남하 정책 견제
↑

[배경] 정부의 친러 경향 → 조·러 통상 조약 (1884) → 영국의 거문도 사건(불법 점령)

조·러 비밀 협약 추진 (1885~86) → 조·러 육로 통상 조약 (1888)

청의 중재.

부들러: 독일 부영사관, 조선의 '영세 중립화' 건의

유길준: 중립화론 제기 → 민씨 정권 반대 (보빙사 파견, 『서유견문』)

★ 함경도 방곡령 사건 (1889)

임오 군란의 결과

- 조·일 통상장정 (1883)에 규정된 방곡령 규정을 근거로 함경도/황해도 지역의
방곡령 규정 철회 요구 → 방곡령 철회 및 배상금 지불!



● 동학 교조 신원 운동

- 교세 확대: **포접제**의 조직을 통해 삼남 지방으로 동학 교세 확장
- 삼례집회 (동학 탄압 중지 주장), 서울 집회(국왕에게 교조 신원 상소), **보은 집회**(반봉건, 반외세 주장 → 종교운동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전환)
- * 이필제의 난(1871): 최제우 처형으로 영해지역에서 일어난 교조신원운동

● 동학농민운동 (1894)

※ 사발통문 작성: 농민봉기의 거사 계획이 담긴 문서 (주도자 은폐)

[배경] **고부민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의 관아 습격 → 폐정 시정 약속 (만석보 저수지로 물세 수취) (안핵사 파견, 자진해산)

▶ 1차 농민 봉기 (1894.3)

[배경]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 농민 탄압 (보국안민, 제폭구민)

[전개] **전봉준 백산 봉기** → 4대 강령 발표

→ **황토현**(4.7) / **황룡춘**(4.23) 전투 승리 이후 전주성 점령 (4.27)

→ 정부의 청 진압 요구 → 청군 파견 (5.5 아산안 상륙)

→ 일본군 파병 (5.6 텐진조약 위반 명분) → **전주화약 체결** (5.8) (외국군대 철수, 폐정 개혁안)

→ 정부의 **집강소** / **교정청 설치** (6.11)

(농민 자치 개혁 기구) (정부 개혁 기구)

탐관오리 징계, 신분제/과거제 폐지, 토지 균등분배, 과부 재가 허용

▶ 2차 농민 봉기 (1894.9)

[배경]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 (전주화약 거부), 일본의 내정 간섭(군국기무처)

[전개] **삼례**에서 재봉기 → 남접(전봉준), 북접(손병희)의 연합부대 **논산 집결**

→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11.9) →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 처형

[의의] 반봉건적 근대화 운동 / 반외세적 민족 운동

● 갑오/을미 개혁 (1894 ~ 1896.2)

① 1차 개혁 (1894.7 ~ 12)

[배경] 조선의 일본군 철수 요구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김홍집 내각 수립

→ **군국기무처 설치** → 청·일 전쟁 혼란함 틈 개혁 추진

[내용] 왕실사무 (궁내부), 국정사무 (의정부) 분리, 6조→8아문 개편

개국 기원, 경무청 신설, 도량형 통일, 과거제 X

재정일원화 (탁지아문), 조세 금납제, **“은본위제”** (화폐 → 은)

신분제(공·사·노·비) 철폐,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고문/연좌제 X

② 2차 개혁 (1894.12 ~ 1895.7)

- 청·일 전쟁 일본 우세, 김홍집/박영효 연립 친일 내각

[**홍범 14조**] ← 고종이 종묘에서 독립 서고문과 함께 반포

. 8아문→7부, 전국 8도→23부 337군, 의정부 → 내각제 시행

. **교육입국조서** 발표 (1895, 한성사범학교 설립)

. 지방관 권한 ↓ (**사법권, 군사권 독립**) → 재판소/훈연대/시위대 설치

⇒ 결과: 청·일 전쟁 종결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 → **삼국 간섭** (러프독) 청/일 간 조약 But, 요동반도 반환!

③ 을미 개혁 (1895.8 ~ 1896.2)

- 삼국 간섭 이후 친러파 ↑ → 을미사변 (1895.8) → 김홍집 내각의 친일 개편

- 내용: **태양력** 사용, 연호 (**건양**),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우편 사무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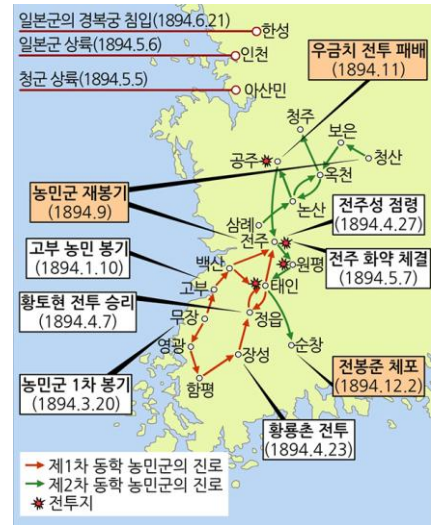
군대 친위대 (중앙) / 진위대 (지방)

⇒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 각지에서 의병 봉기(**을미의병**), **아관파천**으로 개혁 중단

위정척사 사상 유생 주도 (문석봉, 유인석, 이소용)

→ **고종의 해산 조치** (이후, **화빙당으로 활동**)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파천한 사건



[동학 농민 운동 전개과정]

● 독립협회 (1896)

→ 황성 신문 발행

-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주도 / 각계각층 인사 참여

- 독립신문 (1896.4) → **독립협회** 창설 (1896.7) → 강연/토론회 (민중계몽)

[활동] 독립문 건립, 고종 환궁 (1897.2 경운궁=덕수궁) → 대한제국 선포 (1897.10)

만민공동회 개최 → 러시아의 철영도 조차 요구 저지, (1898.3) 러시아 재정고문단 철수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한·러 은행 폐쇄

기본권 운동, 의회설립 운동 (민의 국정 반영)

관민공동회 개최(1898.10) → **헌의 6조** 결의 → 재정 일원화 (탁지부) (박정양 개략연설) 국정개혁, 인권보장, 국권수호 중앙 재정 관청

상권 수호 운동: 황국 중앙 총상회와 함께 전개 (1898.10)

[결과] 황국 협회와 군대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 강제 해산 → 독립협회 해체

● 대한제국 (1897.10.12 ~ 1910.8.29) 국호: 대한제국 / 연호: 광무 / 왕: 황제

광무개혁: 구본신참, 점진적 개혁, **전제 황권 강화**, **교정소** (황제 직속 입법 기구)

[내용] 대한국 국제 반포(1899.8), 지방제도 (23부 → 13도), 중추원 (황제자문기구)

원수부 설치 (황제의 국권 장악), **양전 사업** (지계 발급), 무관학교

간도 관리사 파견 (이범윤), 독도 관할 영토로 명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석조전 (대한제국 서양식 건축물) / 관립의학교, 관립상공학교, 광제원 설립

★ 간도 귀속 문제

- 속종: **백두산 정계비** (서쪽 압록강, 동쪽 토문강 경계), 토문강 송화강 상류

- 고종: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에 편입)

- 을사늑약 (1905) 외교권 박탈 → **간도 협약** (1909, 청-일)

간도를 청의 영토로 불법 귀속

대신, 일본은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획득



자료: 간도회시기문헌본부



● 국권 피탈 과정

1902.1	영·일 동맹	영→청, 일→한 점령 ⇒ 러시아-일본 한반도 분할 논의
1904.2	러·일 전쟁	[배경] 용암포 사건 : 러시아의 용암포 불법 점령 ⇒ 일본의 기습, 1905.5 발트 함대 전멸 (~1905.9)
1904.2	한·일 의정서	국외 중립 무효화, 군사 요충지 사용 , 충고권, 황무지 개간권 요구 (보안회, 농광회사 반대!)
1904.8	제1차 한·일 협약	재정/외교 분야 고문 초빙 일본인(재정-메가타), 미국인(외교-스티븐스)
1905.2	일본 독도 불법 편입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 - 일방적 편입!
1905.7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국(필리핀), 일본(대한 제국) 지배 인정
1905.8	제2차 영·일 동맹	영국(인도), 일본(대한 제국) 지배 인정
1905.9	포츠머스 강화조약	러·일 전쟁 일본 승리/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인정
1905.11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	덕수궁 중명전 (고종 합의없이 체결) 외교권 박탈 , 통감부 설치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
1907.6	헤이그 특사 파견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 (이준/이상설/이위종) ⇒ 영/일 방해로 실패 ㅠ
1907.7	고종의 강제 퇴위	순종 즉위
1907.7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차관 통치, 통감부의 인사/외교권 장악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
1907.8	군대 해산	한·일 신협약 부수 각서, 해산 군인 의병 가담 → 정미의병 조직 / 시위대장 박승환 자결
1909.7	기유각서	사법권, 감옥사무권 피탈, 언론/출판 자유 금지
1910.6	경찰권 피탈	-
10.8.29	경술국치	한·일 강제 병합, 조선 총독부, 헌병 무단 통치

● 을사늑약 반대 운동

- 조병세/이상설의 상소, 민영환 자결, 나철/오기호 '**5적 암살단**' → '자신회' 조직
-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 게재, 고종의 친서 (@대한매일신보)
- 의사 ① **전명운, 장인환**: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단
② **안중근**: 단지동맹, 만주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저격** (동양평화론 저술)
③ **이재명**: 명동 성당, 이완용 처단 시도

● 의병 활동

- **을사/병오의병** [배경] 러·일 전쟁 일본 승리 → 을사늑약 체결 (1905~1906) [전개] 평민 의병장 등장 (**신돌석**-태백산 호랑이 / **최익현**-대마도 유배) **민중식**-홍주성 점령
- **정미의병** (1907)
[배경] 고종의 강제 퇴위 / 군대 해산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여 전투력 높음)
[전개] **서울 진공 작전** (1908.1): **이인영**, 허위 유생 의병장 주도, '**13도 창의군**' 창설
→ 경기 양주에 1만 집결 → 이인영 부친상, 허위 체포, 일본의 반격 후 실패!
→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 (스스로 독립군 칭호)

보안회 (1904)	황무지 개간권 반대
헌정연구회 (1905)	독립협회 계승, 입헌적 정치 체제 수립 반민족적 친일 행각 하던 '일진회'에 대항하다 해산
대한자강회 (1906)	헌정 연구회 계승,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운동 지회 설립/월보 간행/일진회 규탄 → 통감부 탄압으로 해체
대한협회 (1907)	대한자강회 후신 / 친일단체로 변화
신민회 (1907~11)	안창호-양기탁 중심 / 황일 비밀 결사 민족주의 교육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 서관 (계몽서적) 독립운동 기지 (남만주 삼원보), 신흥 감습소 (서간도) → 일제가 날조한 ' 105인 사건 ' (1911)으로 해산

● 일본의 경제 침탈

- 황무지 개간권 요구 → **보안회** (원세성, 송수만) / 황성신문 반대 → 철회
- **화폐 정리사업** (1905): 대한 제국 화폐 (백동화, 상평통보) 사용 금지
일본 재정 고문 메가타 주도
→ 화폐 부족 → 일본에 차관 제공
- 철도 부설권 (경인선, 경의선), 광산 채굴권 (운산 금광 채굴권), 산림채굴권
- ★ **국채 보상 운동** (1907): 서상돈, **대구**에서 시작 → 전국 확대
'국채 보상 기성회', 대한매일신보, 황성/제국신문 참여
⇒ **얕기탁 구속** (형령 누명), 일제 탄압으로 실패 ㅠ
-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

★ 언론 기관

한성 순보 (1883~84)	박영효 (개화파), 순 한문, 최초의 신문 , 박문국 발행
한성 주보 (1886~88)	7월 1회, 최초 상업광고 게재
독립 신문 (1896~99)	서재필, 한글판/영문판, 최초 민간 신문 (정부 지원)
제국 신문 (1898~1910)	부녀자/서민층 대상, 순 한글
황성 신문 (1898~1910)	남궁억 발간, ' 시일야방성대곡 ' (을사늑약 비판) 황무지 개간권 부당성 지적 (with 보안회) 「 여권통문 」 처음 보도
대한매일신보 (1904~10)	영국인 베렐/양기탁 설립, 을사늑약 무효 고종 친서 국채 보상 운동 주도 , 일본인 출입금지 간판 의병 투쟁 호의적 기사 게재 - 주필: 박은식, 신채호, 최익 등
만세보 (1906~07)	천도교계 신문, 여성 교육, 여권 신장
경향신문 (1906~10)	천주교계 신문

★ 근대 교육 기관

원산학사 (188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
동문학 (1883)	외국어 교육 기관, 통역관 양성 ' 사민필지 ' (한글 교재) 집필
육영공원 (1886)	정부가 세운 최초의 관립 학교 (헬버트, 길모어 초빙) <small>좌원과 우원으로 구성</small>
개신교 계통	배재(아펜젤러), 이화(스크랜튼), 경신,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small>1885 1886 1887 1897</small>
민족주의	서전서숙(북간도), 신흥무관학교(남만주), 오산학교(전주), 대성학교(평양)

★ 국학 연구

- 신채호 '**독사신문**' (민족의 혼 강조) / 국문 연구소 (1907) - 지석영, 주시경
⇒ 일제의 출판법 (1909) 따른 내용 검열
- 신채시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 신소설 (이인직 「혈의 누」, 안국선 「금수회기록」)
-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 '은세계' 공연 - 1908년)

***찬양회**(1898):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이었던 이소사, 김소사의 명의로 「**여권통문**」 발표
여성 권리 선언문

★ 종교

-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을 개칭, **만세보/개벽/신여성** 발간
- 대종교: 나철, 오기호 / 단군신앙 바탕
- 박은식 '**유교 구신론**': 주자학 중심의 유학 비판 / 양명학 통해 유학 개선 (실학 실천정신 계승)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 불교의 자주성 회복

★ 근대 시설 도입

- **전환국**(화폐 발행), **박문국**(한성순보 발행), **기기창**(신식 무기 제조), **우정국**(우편)
1883 1883 1883 1884
- 광혜원(제증원/**최초의 서양 병원**), 전신 가설 (의주-한양-인천), 최초 전등 (경복궁)
1885 1885 1887
- 최초 전화(덕수궁), 한성전기회사 설립, 경인선(최초의 철도), 최초 전차 (서울~청량리)
1896 1898 1899 1899
- 경부선 개통 1905



1. 헌병 무단 통치 (1910~1919)

-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헌병 경찰** (즉결처분권, 태형, 언론/출판 X)
(중추원: 총독부의 자문 기구)
- **회사령** (1910): 회사설립 시 총독의 허가
- **토지조사령** (1912): 기한부 신고제, 절차 복잡 → 소작농 토지권 상실
- 산업 약탈: 어업령, 삼림령, 임야 조사령, 광업령 /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경북공)

2. 문화 통치 (1919~1931)

- 3·1운동 이후 **민족 분열 시도** (친일파 양성)
- 문관총독 조선 임명 가능, but 임명한 적은 없음
- 헌병 경찰 → **보통 경찰** (고등경찰) / **치안 유지법** (1925)
- 민족 신문 발행 허가 (조선/동아 일보), but 철저한 사전 검열
- 경성 제국 대학 (1924) → 민립 대학 운동 무마
- **산미 증식 계획** (1920~34): 쌀 생산량 증대 추구
⇒ 증산 비용 지주에게 부담 → 지주는 다시 농민에게 부담 강요
식민지 지주제 강화 / 목포·군산 (쌀 수탈)
- **회사령 및 관세령 철폐**: 신고제, 일본 자본 침투 용이 → **물산 장려 운동 전개**
(1920) (1923)
- **조선 노농 총동맹** (1924): 노농계급 해방 요구,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
- *조선 농민 총동맹 (1927): 조선 노농 총동맹에서 분리 후 조직된 농민 단체

3. 민족 말살 통치 (1931~1945)

- 황국 식민화: **내선일제**, 일선동조론, **신사참배** / **황국신민서사 암송**, 궁성 요배 강요
- 민족 말살: 우리말/역사 교육 금지, **일본식 성명 강요** (창씨개명)
- 집회 허가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1936),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
- **병참 기지화** / **남면북양 정책** / **국가 총동원법** (1938) / **국민 징용령** (1939)
- 애국반 조직 (1939), 식량 배급제 (1939), 산미증식 계획 재개 (1940), 가축증식 계획
- 언론 탄압: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강제 폐간 (1940.8), **조선어학회 사건** (1942),
- **조선 소작 농지령** (1934), **학도 지원법** (1943), 징병제 (1944), 농촌진흥운동 1932~1940

● 3·1 운동 이전 민족운동 (1910년대)

- [국내]
- 독립의군부(서울): **임병찬** (고종의 밀명, **복벽주의**), **국권반환요구서**
 - 대한광복회(대구): **박상진** (채기중의 대한광복회 개편) / **군대식 조직** 복벽주의, 공화주의, 김좌진 가입 후 전국적 조직
 - ※ **백산 상회**(1904): 백산 안희제가 독립 자금 조달 위해 설립한 회사/독립단체

[국외]	
서간도 (남만주)	삼원보 : 신민회 설립 경학사: 이회영/이시영 → 신홍강습소 설치 부민단: 경학사 해체 후 조직, 백서 농장 서로군정서 : 한족회가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합하여 개편
북간도	중광단(대종교) → 북로 군정서군 개편, 무오독립선언서 사립학교: 서전사숙 (이상설), 명동학교 (김약연)
중국	신한청년당: 어운형/신채호,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
연해주	권업회 : 유인석/이상설, 권업신문, 대전학교 (무관학교) 대한광복군 정부 : 이상설(정), 이동휘(부), 무장항일운동 대한국민의회 : 손병희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파리강화회의 의 고창일 파견 * 신한촌 : 한인집단 거주지 (@블라디보스토크) * 스탈린 명령 으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미주	대한인 국민회 :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연해주 독립자금) 대조선 국민군단 : 박용만,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한인 비행 학교: 미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노백린/김종립)
멕시코	승무학교 (무장투쟁 준비)

● 3·1 운동

- cf. 2.8 독립 선언 (일본 도쿄) / 만주 무오독립선언
- **고종** 인사일(장례일)에 맞춰 운동 준비, 기미독립선언서 (최남선, 한용운)
 -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 **탑골공원 만세 운동**
 - 일제 탄압: 유관순 순국, **화성 제암리 학살** ㅍ / 중국 5·4운동에 영향
예배당에 가두고 무차별 사격 / 방화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9) ← 3·1운동에 영향 받아 설립

- 국내 한성 정부 법통을 계승, **상하이**에 설립
- **최초 민주 공화정**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
[활동] 비밀 행정 조직망 (연통제, 교통국) / 독립 공채 발행 / 임시 사료 편찬회
신한 청년당 → **파리강화회의 파견 (김규식)** /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 설치
충청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 발표 **외교 독립 활동**
- ★ **국민대표 회의** (1923) (상하이 개최) '**2천만 민중의 공의를 지키는 국민적 대회**'
· **창조파**(무장투쟁): 이동휘, 신채호, 박은식
→ 임시정부 해체, 연해주에 새로운 조선공화국 수립
- **개조파**(외교독립): 안창호, 실력 양성, 자치운동
- 협상유지파: 이동녕, 김구
⇒ 최종 합의 결렬 / 독립운동 세력 분열
⇒ 이승만 탄핵, 국무령제로 개편 (1925, 김구)

한민애국단 (1931): 이봉창, 윤봉길 의거

한국독립당 (충칭): 한국광복군(1940) 창설, 좌우통합의 임시정부



김규식



안창호



이동휘

↳ '총사단' 민족운동단체 창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 ★ **대동 단결 선언서**: 1917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혁명당** 신규식 등 14인이 독립운동의 활로와 이론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민족대회 소집을 제의한 문서



- ★ '역사길잡이최재원생' 유튜브 강의 참고:
1910년대 국내, 국외 독립운동 암기비법 (10분 순삭ver.)



● 실력 양성 운동

- **물산 장려 운동**: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 (1923)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애용 (자작회, 부인회) → **사회주의 계열의 비난**
- **민립대학 설립 운동**: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창립 (1923, **이상재**) → **경성제국 대학** 설립
- **농촌계몽 운동**: 문맹퇴치 운동, 문자보급 운동 (**조선일보**), **브나로드 운동** (동아)
→ 일제의 '농촌진흥 운동' (1932) 탄압

● 6·10 만세 운동 (1926)

- 식민지 교육 정책 반발, **순종(연호: 융희)의 인산일** 학생들 격문 배포 및 만세 시위
- 학생 + 사회주의계 (사전에 일제에 발각) → 학생들 주도
- ⇒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결성 계기 (민족주의 + 사회주의 가능성)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

- 나주/광주 통학 열차, 항일 학생 간 충돌 → 일본의 편파적 사법처리
-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 파견** → 학생, 시민의 전국적 투쟁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 항일 민족 운동)

● 사회적 민족 운동

- . 청년운동: 조선청년 연합회(1920), 서울 청년회, 조선 청년 총동맹
 - . 소년운동: 방정환, 어린이 날 제정, 『어린이』 (잡지)
 - . 형평운동: 백정 사회적 신분 차별, 조선 형평사 (1923, 진주)
 - . 여성운동: **근우회**(1927)-여성계 민족 유일당 / **신간회의 자매단체** / 『근우』 발행
 - . 농민운동: **임태도 소작쟁의**(1923): 서태석 중심 소작료 인하 요구 → 40%인하 성공!
 - . 노동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 최대규모의 조직적 노동쟁의, 항일 운동
(초기) 생존권 투쟁적 성격 → (후기) 사회주의 영향, 항일 투쟁 운동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음
- ※ **신경향파** 작가: 1920년대 카프 (KAPF) 결성

★ 1920년대 국내 독립 운동 전개

- 민족주의 [우파(타협적): 이광수, 최린 <민족협동전선>
좌파(비타협적): 안재홍, 이상재]
사회주의 - 조선공산당 (무정부주의)] **조선민흥회 (1926.7)** → **신간회 (1927)**
정우회선언 (1926.11)

● 신간회 (1927~1931)

- 민족유일당 운동, **최대 항일 합법운동 단체** (이상재-회장, 홍명희-부회장)
- 민중대회, 전국 순회 강연 / **광주학생운동단에 조사단 파견**
-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 → **민족협동전선** 결성
- 해소: 민족주의자/사회주의자 간의 갈등, 노선 차이 → 전체회의에서 해소 결정

★ **만보산 사건**: 1931년 7월 2일에 만주 지역 만보산에서 일본의 술책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수로 문제로 일어난 충돌 및 유혈사태 (반중 정서 격화) 이후, 중일 전쟁의 시조인 '만주사변'의 배경이 됨

*저항 시인: 윤동주 (서시, 별헤는밤, 참회록) / 이육사 (광야, 절정)

영화 **아리랑** 제작/감독 (나운규) / 소설 상록수 (심훈) (1926)

●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

지리/역사/한글 X

- 1차 조선교육령(1911~22): **보통학교(4년)**, 서당규칙, 사립학교 규칙
- 2차 교육령 (1922~38): **보통학교(4→6년)**, 고등보통학교 (5년)
한국인 대학 입학 허가, 지리/역사/한글 O
- 3차 교육령 (1938~43): **심상소학교** (보통/소학교 통합), **국민학교령** (4년제)
소학교 → 국민학교
- 4차 교육령 (1943~45): 전시교육체제, **조선어/역사 교육 폐지**

★ 국어 연구

국문 연구소(1907) → 조선어 연구회(1921) → **조선어 학회**(1931) → 한글학회(1949)
지석영, 주시경 한글날(가갸날) 제정
잡지 『한글』 발행
↓
『한글 맞춤법 통일안』 / 『조선어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착수

⇒ 일제 탄압: '**조선어학회**' 사건 (우리말 큰 사전편찬 회원 검거 - 치안유지법 근거)

★ 민족 사학

박은식	조선 ' 훈 ' / 『 한국통사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유교구신론 』 저술
신채호	낭가사상(화랑도), 『조선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조선사연구초』
정인보	' 조선 열 ' 강조, 『조선사 연구』 저술
문일평	' 조선 심 ' 사상, 『호암전집』 집대성
백남운	' 사적 유물론 ' (한국사와 세계사적 발전 과정 동일), 『조선사회 경제사』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 비판)
손진태 이윤재	실증사학 (문헌 고증 → 한국사 실증적 연구), 진단학회 (이병도)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 박은식, 『한국통사』 -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인,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 나라.

-신채호, 『조선상고사』 -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 종교활동

- **대종교**: 나철, 오기호 /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 (중광단-서일, 북로군정서)
- 불교: 조선불교유신회 (1921, 한운운) - '님의 침묵' / **월간지 유심을 발간**
- **천도교**(동학): 제 2의 3·1운동 (6·10 만세운동), 만세보 창간,
잡지 『개벽』, 『신여성』, 『어린이』 간행
- 천주교: **의민단** 조직(만주) / 원불교: 박종민 → 새생활 운동 추진



● 무장 독립 투쟁

- 의열단(1919): **김원봉**, 중국 지린성 / 식민지 기구 파괴, 친일파 처단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 (1923, 의열단 강령)

[활동] 박재혁 (부산 경찰서), 김상옥 (종로 경찰서), 김익상 (조선 총독부),
김지섭 (일본 도쿄 왕궁),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 **김창숙 지원**

⇒ 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 후원 아래 '조선혁명간부학교'(1932) 설립,

김원봉을 중심으로 '민족 혁명당' 조직 (1935)

※ **조명하 의사(1928)**: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 저격

- 한인애국단 (1931): **김구 중심, 상하이 조직**

※ **이봉창 의거** (1932.1) - 도쿄에서 일본 국왕 폭탄 투척

중국 언론의 지지 → 일제의 상하이 침략 (만주사변, 중일전쟁)

※ **윤봉길 의거** (1932.4) - 홍콩우 공원에 폭탄 투척

중국의 임시정부 지원 계기 (한중연합작전) → 한국광복군 (1940)



김원봉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 1920년대 국외 독립군 부대

- 서간도: 서로군정서군 (신흥 무관학교 출신), 한국독립당 (조소앙)

- 북간도: 북로군정서군 (대종교, 서일/김좌진), 대한독립군 (의병장 홍범도)
→ **광복단 중심 조직**

삼둔자 전투	독립군 추격 일본군의 매복 기습 작전
봉오동 전투 (1920.6)	대한독립군 (홍범도) + 군무도독부(최진동) + 국민회군(안무)
훈춘 사건	일제가 만주로 보낼 군사의 정당성 필요, 마적 매수
정산리 전투 (1920.10)	북로군정서 (김좌진) + 대한독립군 (홍범도) → 6일간 10차례 전투 / 일본군 격파
간도 참변 (1920.10~21.5)	간도 지역 독립군 + 주민 10,000 여명 무차별 학살
독립군 부대 이동	밀산에서 독립군 부대 연합 → 대한독립군단 조직
자유시 참변 (1921.6)	홍범도의 독립군 통합 과정에서 지휘권 분쟁 발생 → 자유시 로의 이동 거부한 대한의용군의 학살
3부 성립	참의부: 압록강, 임시 정부 직할 단체 정의부: 3부 통합 주도 신민부: 북만주 일대,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 흡수
미쓰야 협정 (1925)	총독부 경무 국장 (미쓰야), 만주 군벌 (장쥔린) → 만주 독립군 토벌에 상호 약속 (3부 활동에 제한)
독립군의 3부 통합 운동	* 혁신의회 (1928, 북만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창설 * 국민부 (1929, 남만주):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창설



홍범도 (대한독립군)



김좌진 (북로군정서)



최진동 (군무도독부)

● 한중 연합 작전

한국독립군(지청천) + 중국 호로군 → **쌍성보 전투**(1932), **대전자령 전투**(1933)

조선혁명군(양세봉) + 중국 의용군 → **영릉가 전투**(1932), **흥경성 전투**(1933)



지청천 (한국독립군)



양세봉 (조선혁명군)



조소앙 (한국독립당)

● 조선 민족 혁명당

- 한국독립당 + 조선혁명당 + 의열단 + 신한독립당 + 대한독립당
조소앙 **최동오** **김원봉** **지청천** **김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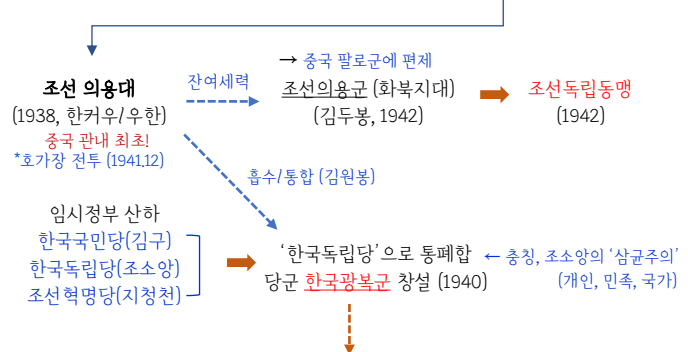
→ 다섯 정당/단체 규합 '**민족혁명당**'(1935) 난징

- 이때, 민족주의 계열 (지청천, 조소앙) 탈퇴 → 한국국민당(김구)에서 흡수

- 잔여 세력이 의열단 중심으로 '**조선 민족 혁명당**' 개편, **조선의용대** 창설

- 중일 전쟁 이후 중국 정부의 도움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 군사 조직



. 총사령관 지청천

.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흡수/통합 (1942)

. 대일/대독 선전포문 발표

.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 활동

. **국내 진공 작전**: 미국 부대(OSS)와 연합 → 일본 항복으로 실패

※ **대한애국청년당**: 유만수, 강윤국 등이 1945.5 결성한 항일 독립운동단체

→ **부민관 폭파 사건(1945.7)** 주도 (친일세력 처단 시도)



● 광복과 국내 정세의 변화

- ① 카이로 회담 (1943.11): 미·영·중 / 적절한 시기에 한국 독립 약속
- ② 알타 회담 (1945.2): 미·영·소 / 소련군의 대일 참전 약속
- ③ 포츠담 선언 (1945.7): 미·영·중·소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한국의 독립 확인)

※ **건국준비위원회** (1945.8.15): 여운형, 안재홍이 결성, 치안유지

※ 조선 인민 공화국 (1945.9.6): 이승만(주석), 여운형(부주석) → **미군정 실시**
군정청 / 신한공사설립 (귀속 재산 관리)

●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1945.12 / 미·영·소)

- ① 한국에 **임시정부** 수립, ② **미·소 공동위원회**, ③ **최고 5년간의 한반도 신탁 통치** [입장] 우익: **신탁 반탁운동** 전개 (김구, 이승만)

좌익: 반탁 → 친탁 (임시정부 수립에 의의)

중도: 김규식, 여운형 → 신탁통치에 신중한 입장

좌우합작운동과 미소공위 재개를 통해 남북 통일 임시정부 수립 지향

▶ **1차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 소련 (반대정당 배제) vs 미국 (모든 정당 포함) (1946.3 / 덕수궁 석조전) → 끝내 결론 내지 못하고 무기한 휴회..

● 좌우 합작 운동 (1946)

[배경] 이승만의 **정읍발언**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 주장) (1946.6)

→ 이후 남북 분단방지의 필요성 제기

[전개] 중도우파(김규식) / 중도좌파(여운형)의 주도로 시작

좌우합작위원회 결성(1946.7), **좌우합작7원칙** 발표 (1946.10)

→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1946.12) 설치

[결과] 한국독립당(김구) 찬성, but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반대!

→ 주도세력 불참, 여운형의 암살

정당	대표	성향	신탁통치	정부형태
한국민주당	송진우	우파	반대	남한 단독정부
한국독립당	김구	민족적 우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조선인민당	여운형	중도	유보	통일 민족정부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민족적 좌파	찬성	통일 공산정부
조선공산당	박헌영	좌파		

▶ **2차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 다시 미·소 공위 개최했으나 결렬 / 유엔(UN)으로 이관 (1947.5)

● 5·10 총선거 (역사상 최초의 민주 보통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출/임기 2년)

1947.9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좌우합작 운동 실패 → 미국이 한국문제 유엔에 상정
1947.11	유엔 총회 결의	남북 인구비례 총선거 추진, But, 소련의 반대
1948.1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남한 내한, but 북한은 입국 거부
1948.2	유엔 소총회 결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	[찬성] 이승만/한국민주당 환영 [반대] 김구/한국독립당: 남북협상 (1948.4) 좌익: 반대투쟁 - 제주4·3사건 (1948.4)
1948.5	5·10 총선거	한국독립당(김구)/중도파(김규식)/사회주의계는 불참, 남한 국회의원 198명 선출 (제주 투표 2표 무효) → 여수·순천사건 (1948.10)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공화국)

- **제헌 헌법 공포** (1948.7.17): 대통령 중심의 단원제, **임기 4년 대통령 간선제**

- 정부 수립(1948.8.15):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제헌 국회] 친일파 청산: 반민족적 행위 처벌법 (**반민법**) 제정, 공포

(의원 임기 2년) → but 정부(이승만의) 방해 / 국회 프락치 사건 → **반민특위 해체**

농지 개혁: **농지 개혁법** (1949.6) 공포/시행, **귀속 재산 처리법** (1949)

→ 삼림/임야 제외한 농지를 국가가 **유상 매입 후 유상 분배**

★ 한국 전쟁 (1950~1953)

※ **애치슨 선언**: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으로 연결 → 한국은 제외되어 이후 6.25 전쟁의 발미 제공

[전개 과정]

① 북한의 남침(6.25): 서울함락(6.28) → 유엔군, 미지상군 참전 (6.27~7.1)

→ 국군 작전 지휘권 이양(7.14) → 낙동강 방어선 구축 (8~9월) (**다부동 전투**)

② 국군/유엔군 반격: **인천상륙작전** (9.15) → 서울 수복 (9.28) → 평양 탈환(10.19)

→ 압록강 최대 진격(11월 중순)

③ 30만 중공군 개입: 홍남 철수 작전 (1950.12) → 서울 함락(1951.1.4 후퇴)

→ 서울 재탈환(3월) → 휴전 제의 (1951.6)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1953.10)
(소련 → 유엔)

※ **반공포로 석방사건**(1953.06): 한국측이 유엔군의 동의 없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있던 반공포로를 석방한 사건. (한국 정부의 휴전협상 제의 불만 표출)

▷ **발췌 개헌** (1952.7.7 **1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임기 4년 중심제

- 배경: 2차 국회위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 대거 당선 → 이승만 지지세력 약화
(1950)

→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 당선 불확실**

- 전개: 계엄령 선포 후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발췌개헌만 무력 통과** (1952.7)

→ 전쟁 중 부정선거로 대통령 재선 (1952.8)

▷ **사사오입 개헌** (1954, **2차 개헌**)

- 배경: 대통령 3선 금지 조항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 전개: 자유당의 **사사오입 논리**로 개헌만 통과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한 상황)

→ 제 3대 대통령 선거 (1956)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 당선

▷ **진보당 사건** (1958)

- 3대 대통령 선거에서 30% 득표율 무소속 **조봉암**이 **진보당** 창당! (1956)

이후, 평화통일 주장하며 4선 대선 준비 활발! **대공 사찰 강화 / 언론 사찰**

※ **2.4 보안법 파동**: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위기의식을 느껴 **국가보안법**을 통과,

진보당 간부인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 / 경향신문 폐간 (1959.4)

*1950년대 전후 복구: **삼백 산업** (제분, 제당, 면방직) 발달

★ 4·19 혁명 (1960.4.19)

- 배경: 제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당선 확실

but,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 단행!

※ **독재 항거 학생 운동**: 대구 2.28 민주화 운동 / 대전 3.8 민주주의거

- 전개: **마산의 부정선거 항의 시위** → **김주열 학생 시신**(최후탄@부산일보 보도)

→ 고대생 습격 사건(4.18) → **경우대** 시위대 경찰 발포(4.19) → 계엄령 선포

- 결과: 반대 시위 급증, 군지휘부의 무력동원 거부 → **이승만의 자진 하야** (4.26)

⇒ 외무 장관 허정의 권한 대행, 과도 정부 수립 (1960.4~1960.8)

● 제 2공화국 (1960.6 ~ 1961.5)

민의원 + 참의원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유일했던 **앞원제 의원 내각제 / 내각책임제**)

- 민주 개혁 시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평화통일 추진 / **3차, 4차 개헌**
(추진은 못함)

-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추진 -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 제 3공화국

▷ 군사 정부(1961.5.16 ~ 1963.12)

- 5-16 군사 정변: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 군사 정변,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 실시 (즉각 헌정 중단), **중앙정보부** 창설 (1961.6)

- 반공 국시, 국회/정당/사회단체 해산, 언론탄압, 제 1차 경제개발계획 시작 (1962)

⇒ 제 5차 개헌: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 민주 공화당 창당

▷ 박정희 정부 (1963~1972)

장발/미니스커트 금지, “경범죄처벌법”

- 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 (윤보선 경쟁)

[내용] 서독에 광부/간호사 파견(1963): 3천만 달러 차관 받음

베트남 파병 (1964~1973):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브라운 각서, 1966)

한일 국교 정상화 (1965): 김종필 - 오하라 메모 (독립 축하금)

→ 6-3 화쟁 (1964)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 → **한일 기본 조약**(65.6.22)- 김신조 무장공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향토 예비군** 창설, 교련수업

무시험 중학교 추천제 (1969)

* 8-3 사재 동결 조치 (1972): 사재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

- 3선 개헌 (1969, 제 6차 개헌) → 대통령 3선 연임 허용안 상정

⇒ 제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1967) 후 장기 집권의 기반 * 전태일 분신사건 (1970):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평화시장 봉제공단)

⇒ 이후 제 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당선! (김대중 경쟁)

★ 경제 개발 5개년 추진 계획

광주 대단지 사건(1971):

박정희 정부 도시 정책에 반발 대규모 시위

1차(1962~66): 경공업 (신발, 의류) 수출 **민정학원 사건(1974):** 불온세력 혐의 구속/기소2차(1967~71): **새마을 운동**(1970), **경부고속도로 건설** (1970)

3차(1972~76): 중화학 공업화 추진, 포항 제철소 1기 설비 준공 (1973)

4차(1977~81):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77)

● 제 4공화국 (유신체제, 1972~1979)

* 6-23 특별 성명 발표 (197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배경] 7-4 남북공동성명(1972) - 3대 통일 대원칙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 국가 안보 강화, 평화 통일 정치 안정 위해 10월 유신헌법 공포

☆ **유신헌법** (1972.12, 제 7차 개헌) * 통일 주제 국민 회의(1972): 박정희 대통령 선출

- 개인 자유, 민주 정치 활동 제약 (권위주의 독재 체제), 초법적 긴급조치권!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국회의원 1/3 임명권, 국회 해산권유신 헌법 개정을 위한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1973) ← 장준하 주도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 조작 (1974):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법살인

⇒ 저항 문화 (아침 이슬 가요), 동아일보 예약광고 무더기 해약사태 (1974.12)

→ 3-1 민주 구국 선언 발표(1976): 윤보선, 김대중 / 긴급조치 철폐 요구 / 명동성당

→ YH무역노동운동 (1979.8) → 신민당 총재 김영삼 국회 제명

→ **부마 민주 항쟁** (1979.10) → **10-26 사태** (박정희 피살 / 유신체제 붕괴)

● 제 5공화국

- 신군부의 등장: 10-26사태 → 계엄령 → 최규하 대통령 선출 → **12-12 군사 정변**

- 서울의 봄(1979.12~1980.5): 계엄령 해제, 신군부 퇴진 요구

→ 계엄령 확대 (국회/정치X, 파업 금지, 언론 검열)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 전두환 정부 (제 5공화국, 19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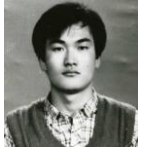
- 신군부의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1980) 조직, 권력 장악- **제 8차 개헌** (1980.1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 대통령 선출 (1981)- 강압 정치: **민주화 운동 금지**, **삼청교육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보실언론 통제 (언론통제탑 → **언론 기본법**), 보도지침 자료 하달

- 유향 정책: 야간 통금 해제, 교복 자율, 해외 여행 자유, 프로 야구, 중학교 의무교육

- 최초의 **이산가족상봉** (1985.9): 남북한 고향 방문단 / 예술 공연단 도서/벽지 시작- **3자 호황** (원유/달러/금리) **경제 성장!** / 최저 임금 위원회 (1987)

★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요구)

[배경]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1) 불만 여론전두환 정부의 개헌 요구 무시 (**4-13 호헌 조치**)[전개] 6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전국적 국민 대회, **이한열 열사** 최루탄 사망→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6-29 선언** (노태우)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10 **9차 개헌**)

● 제 6공화국

▷ **노태우 정부** (1988~1993) - 제 13대 대통령 선거- 여소야대 정국 전개 → 야당 주도로 5공 청문회 개최 → **3당 합당** (1990)- 서울 88올림픽 개최 (1988), **7-7 선언** (민족 자존 / 통일 번영)- **북방외교**: 소련(1990) / 중국(1992)

- 경제 정의 실현 시민 연합(경실련) 창립 대회 개최

- 남북한 UN 동시 가입 (1991),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체결된 합의서

▷ **김영삼 정부** (1993~1998) - 문민 정부- **금융 실명제** (1993), **지방자치제** (1995), 재산등록 의무화,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WTO(세계 무역기구) 출범, **OECD 가입** (1996),- 쌀 시장 개방(1994),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1995), 전국 민주 노동조합 창립

- 조선총독부 철거(19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 초등학교 개칭(1996),

5-16 민주화 진상조사, IMF 외환 위기 (1997)▷ **김대중 정부** (1998~2003)

-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 노사정 위원회 (금모기 운동) → **국제 통화기금 조기 상환** (2001)

- 한일 월드컵 개최, 노벨 평화상,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 **칠레 FTA**(자유 무역 협정) 타결, **경의선 복원 공사**,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01)- 대북정책(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 시작(1998), **제 1차 남북정상회담** (2000)**개성공단 조성 합의** (2002) →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2003~2008): 참여정부- **경부고속 철도(KTX)** 개통, FTA(자유 무역 협정) 협상 타결, 개성 공단 건설 착공- 혁신 도시 건설, **질병 관리 본부**, APEC 정상 회의 개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한-미 FTA**(자유 무역 협정) 체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2005)- **제 2차 남북정상회담** (2007), **10-4 남북공동 선언**, 개성공단 착공 건설→ **6-15 남북공동선언** 고수/구현 약속

- 호주제 폐지(양성 평등),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소추 청구 (2004) 후 63일 뒤 기각 결정

▷ **이명박 정부** (2008~2013)- **국제 경제 협상기구 G20** (서울 정상 회의) 개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시행▷ **박근혜 정부** (2013~2017): 한-중 FTA 체결 (2014) / 탄핵 소추 후 파면 결정 (2017)▷ **문재인 정부** (2017~2022):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 평창 동계 올림픽 (2018)

※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